

히브리서 강해 제1과

강해 노트 자료: www.KeepBible.com, 다운로드 자료실, 히브리서 강해노트

교재: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그리스도 예수안에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 총판)

히브리서 연구(M. R De Hann 지음, 김영균 옮김)

I. 히브리서

A. 정의: 유대인(그리스도인들)들을 위한 복음의 정수

1.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변증하는 로마서 기록
2. 히브리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 그런데 율법과 전통에 매여 있다. 이들에게 율법과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였다.
3. 로마서가 이방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한다면 같은 저자가 기록한 히브리서는 동일한 내용을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것들을 동원하여 선포한다.

B. 저자: 바울, 기록 시기: 주후 66년경(정확하지 않음), 성격: 교리

C. 수신자: 일차적으로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고 실제적으로는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히12:23)

D. 이름: 이 서신의 이름은 바울이 편지를 쓴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유래되었다. 사실 그 당시 이방인들 가운데는 히브리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지금도 구약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읽기 힘든 책이다.

E. 주제: 유대교의 인물이나 제도보다 훨씬 뛰어나신 그리스도

F. 목적: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보여 주고 그분께 초점을 두게 하는 것

G. 내용: 복음의 초기에는 대다수 성도들이 유대인이고 여전히 유대교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유대인 교사들은 기독교로 회심한 형제들에게 손을 뺐어 그들을 다시 유대교로 복귀시키려 하였다.

1. 이에 사도는 유대인 교사들의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먼저 그리스도가 천사와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레위의 제사장 체계와 그 안의 모든 희생물보다 우월함을 증명한다.
2. 그리고 이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사도는 율법의 신비를 아는 것과 그 안의 의식 법들이 제정된 목적과 용례 그리고 이제는 실체가 옴으로써 그것들이 완전히 폐기된 것 등을 논리적으로 보여 준다.
3. 또한 사도는 극심한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을 참으라고 권면하고 배도의 물결에 휘말리지 말 것을 촉구한다.
4. 그러면서 사도는 구약시대 영웅들의 믿음 열전을 보여 주며 '구약과 신약의 동일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우리의 참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상기시켜 준다.
5.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글이지만 히브리서는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된다. 히브리서는 13장, 303절, 6,897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9, 11장(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사라진다)

H. 핵심 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1:3),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자.”(6:1)

I. 핵심 단어: 더 나은(13회), 단 한 번(9회), 하늘(15회),

1. '더 나은'(better) 13차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이 히브리 종교 체제보다 낫다, 천사들보다 뛰어나시다(1:4). 더 나은 소망을 주신다(7:19). 더 나은 약속들(8:6), 더 나은 언약(6).
2. '완전하다'(perfect, perfection) 11차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 이런 완전함은 레위의 제사장 체계나(7:11), 율법으로는(7:19) 불가능하며 짐승의 희생으로 얻을 수 없다(10:1).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로 인해 성도들이 영원토록 완전하게 되었다(10:14). 이로써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 체제와 신약의 그리스도의 은혜 체제를 비교하면서 율법 시스템이 잠정적이며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더 나은 것들을 가져 올 수 없음을 보여 준다.

3. '영원하다'(eternal) 5차례: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5:9), 영원한 구속(9:12), 영원한 상속 유업(9:15), 영원한 제사장(5:6; 6:20; 7:17, 21), 동일하신 분(히13:8)
4. '단 한 번'(once) 9차례, 단번 속죄, 카톨릭 바티칸 사본은 히브리서 삭제
5. 이런 단어들을 종합하면 단번 속죄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약 시대보다 훨씬 더 좋다. 이런 것들이 영원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완전하게 하기 때문이다(요 1:16-17).

J. 핵심 구: “더 나은 상속 언약”, 신약은 구약보다 훨씬 좋다(히11:39-40)

K. 히브리서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L. 영적 교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왕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II. 요약

A. 뛰어나신 그리스도: 1-6장

1. 대언자들보다 뛰어나시다 - 1:1-3
2. 천사들보다 뛰어나시다 - 1:4-2:18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 2:14)
3. 모세보다 뛰어나시다 - 3:1-4:13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 3:7-4:13)
4. 아론보다 뛰어나시다 - 4:14-6:20 (말씀에 둔감한 자가 되지 말라, 5:11-6:20)

B. 뿔기세덱처럼 뛰어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시는 그리스도 - 7-10장

1. 제사장 계열이 뛰어나다 - 7장
2. 언약이 뛰어나다 - 8장
3. 성소가 뛰어나다 - 9장
4. 희생 예물이 뛰어나다 - 10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 - 10:26-39)

C. 뛰어난 원리: 믿음 - 11~13장

1. 믿음의 위인들 - 11장
2. 믿음에 동반된 징계 - 12장 (말씀에 도전하지 말라 - 12:14-29)
3. 실질적인 권면 - 13장

III. 히브리서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

A. 히브리서를 공부하지 않는 이유:

1.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2. 경고의 내용이 두렵다. 특히 히브리서 6장과 10장은 구원을 잃는다는 사람들의 애용 구절
3. 이해하기 어렵다.

B. 히브리서는 매우 중요한 책

1. '단번 속죄' 복음과 믿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매우 귀중한 책
2. 성도의 징계 문제를 보여 줌
3. 야고보서와 더불어 실제 삶의 교훈들을 주는 대단히 귀중한 책
4. 환난기 성도들,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책이라고 하면 안 된다. No!

IV. 바울의 믿음 평가 요청

A. 바울은 히브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삶이 훨씬 더 나음을 평가해 보라고 촉구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1. 이들은 지금 어려운 시기를 만났다.
2. 유대교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유혹에 직면하고 있다(아직 성전과 제사장이 있다).
3. 이들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때에 그분을 믿은 자들에 의해 주님께 인도된 자들(2:3)

4. 분명히 구원받은 자들(3:1), 단순히 입으로 고백만 하던 자들이 아니다.
 5. 극심한 핍박이 있었다(10:32-34; 12:4; 13:13-14).
 6. 그럼에도 그들은 핍박당하는 다른 이들을 열심히 섬겼다(6:1).
 7. 이들은 거짓 교리들의 유혹을 받았다(13:9).
 8. 처음에 진리를 가르쳐준 사람들을 잊으려는 위험에 빠져 있다(13:7).
 9. 영적으로 답보 상태(6:1), 구습으로 돌아가려 한다(5:12).
 10. 공예배에도 안 나오는 이들이 있다(10:25).
 11. 바울의 경고: 그리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구원은 잃지 않지만).
 12.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킹제임스 성경, 교회 찾기가 어렵다. 그래도 구습으로 가면 안 된다.
 13.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가?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
 14. 이것들을 다시 평가해 보라.
- B. 들어야 한다(히3:7-8).
1. 예수님의 말씀(마13:9)
 2. 계시록의 일곱 교회(계2:7, 11, 17, 29, 3:6, 13, 22)
 3. 또 한 번의 권면(히5:12-14, 엡4:14-15)
 4. 믿음을 가진 자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며 불순종할 때에는 징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히브리서 강해 제2과

히브리서 1장

o 히브리서가 바울의 기록임을 증명하는 사실들

1. 2세기 초의 시리아 페시타 역본, 구 라틴 역본 등에 바울이 기록자임이 언급되었다.
2. 동방의 교회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등이 바울의 기록물임을 인정하였다.
3. 서방 교회들에서는 처음에 히브리서가 베드로후서, 요한2,3서 등과 같이 정경성이 의심되었으나 27권의 신약성경 정경에 동의한 뒤에 주후 350년 뒤부터는 바울의 기록물로 인식되었다.
4. 히브리서 자체의 증언
 - (a) 히13:23, 저자는 디모테의 동료이다.
 - (b) 히13:18-19, 그는 감옥에 있고 자기가 곧 풀려나도록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함(빌2:17-24).
 - (c) 히10:34, 그는 결박 중에 있었다.
 - (d) 히13:24, '이탈리아 출신의 사람들' 역시 바울이 로마에 있었음을 보여 준다.
 - (e) 히브리서의 교리가 바울의 교리와 정확히 일치한다(유대인 사도, 기독교의 우월성 강조, 갈 1:11-24, 빌3:2-11).
5.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 정확히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이 서신이 바울의 것으로 알려지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으므로 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들은 그를 배도자로 여겼다(행28 등).

히브리서 1장 요약

- I. 과거에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1:1-2).
- II. 아들의 위치와 위엄
 - A. 모든 것의 상속자, B. 세상들의 창조자, C. 하나님 자신의 정확한 형상
 - D. 모든 것을 유지하시는 분(1:2-3)
- III. 기독교 믿음의 창시자이신 아들의 일
 - A.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치우셨다. B.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 C. 천사들보다 훨씬 더 나은 이름을 얻으셨다(1:3-4).
- IV. 그리스도께서 천사들과는 상대가 안 되는,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라는 사실의 증거들(1:5-14)
 - A. 천사들은 한 번도 아들이라는 호칭을 받은 적이 없다(1:5).
 - B. 그분은 천사들의 경배의 대상이시다(히1:6-7).
 - C. 그분은 하나님이시다(1:8-9).
 - D.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은 변해도 그분은 불변하신다(1:10-12).
 - E. 천사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영들에 지나지 않는다(1:13-14).
- V. 그러므로 우리는 아들에 관한 이런 성경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2:1-4). 그분과 그분의 구원을 무시하면 큰 위험에 빠진다.

1-3절: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히브리서는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시작 부분이 다르다(고전1:1-3): 바울 언급, 지역 교회 언급, 은혜와 평강

지나간 때(1), 마지막 날들(2)의 대조: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렉크맨처럼 마지막 날들을 환난기로 한정시키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는 '마지막 날들' 즉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이다.

(1) 율법 이전 경륜(BC 4000-1500), 율법 경륜(BC 1500-AD 30), 율법 이후 경륜(AD30-재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의 경우 잠시 나타나 말씀하신 뒤 13년 동안 침묵하심(창16:16-17:1)

사사기의 경우 몇 십 년 동안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게 하고 계시를 주지 않은 때도 있음(삿13:1)

엘리의 경우에도 오랫동안 말씀하시지 않음(삼상1-2)

말라기 이후 약 400년 동안 침묵하심

한 천사의 메시지(삿6:11), 천사들의 떼(창32:1), 천사들의 군대(눅2:13), 한 대언자(렘1:1-8;

겔2:1-6), 한 제사장(여호야다 대하24:20; 에스라 스7:6-12), 여러 대언서의 대언자들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 족장 등 유대인들의 육체적 조상들(롬9:5)

스데반의 유대 민족 역사(행7:1-53):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족장, 요셉, 이집트 고생, 모세,

증거의 성막, 다윗, 솔로몬의 성전 건축 등을 이야기한 뒤 52절에서 핵심을 찌름, 수많은 대언자들을

보냈으나 유대인들이 핍박함

그러나 이제는 자기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악한 포도원 농부들 비유(마21:33-46)

하나님의 계시의 진보: 계시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이다(요14:8-11).

구약의 계시에 비해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시다.

(1)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고 긍휼이 많은 분

(2)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 짐승 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

(3) 그리스도의 도덕적 교훈: 산상수훈, 최고의 교훈

(4) 천국과 지옥 및 부활, 미래 심판, 인류의 최종 역사에 대해 명확히 보여 주심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신약 성도들 혹은 신약 사람들; 행17:22-31)

자신의 아들(by his Son): 성경에서 아들(the Son)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아들이 아버지와 동등함을 뜻한다(요5:17-18; 10:33, 36). 여기서 그런 의미

사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말하였으므로 신중히 생각해야 함을 알려준다(히2:1-3; 12:25).

(1)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다(요1:1; 20:28; 히1:8; 요일5:20).

(2) 그래서 아들은 아주 권위 있게 말씀하신다(마7:29).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상속자(시2:8; 롬8:17): 유대 문화에서 아들이면 당연히 상속자(마21:38),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의 위상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들을 만드셨다(요1:3, 10; 골1:16; 엡3:9); 아들이 증재자다.

세상들(히11:3): 대부분의 현재 주석가나 역본은 세상들을 'ages'로 바꾸려 한다. 그래서 이전 세상,

현 세상, 이후 세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적 용례에서 '세상들'은 온 우주를 뜻하거나 인간

세상, 동물 세상, 식물 세상 등 하나님의 창조 세상들을 뜻한다.

히브리서 강해 제3과

히브리서 1장

1-3절: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1) 영광은 하나님의 완전성을 뜻한다. 해에 비교되는 경우가 많다. 천국 자체가 영광이다(벧후 1:17-18), (2) 그런 완전성의 극치 혹은 절정이 그리스도이다.

(3)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요1:18; 14:9; 마11:26-27).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분 자체(his person)의 정확한 형상(골1:15), 창1:26; 벧후1:4, 요일3:2

His person: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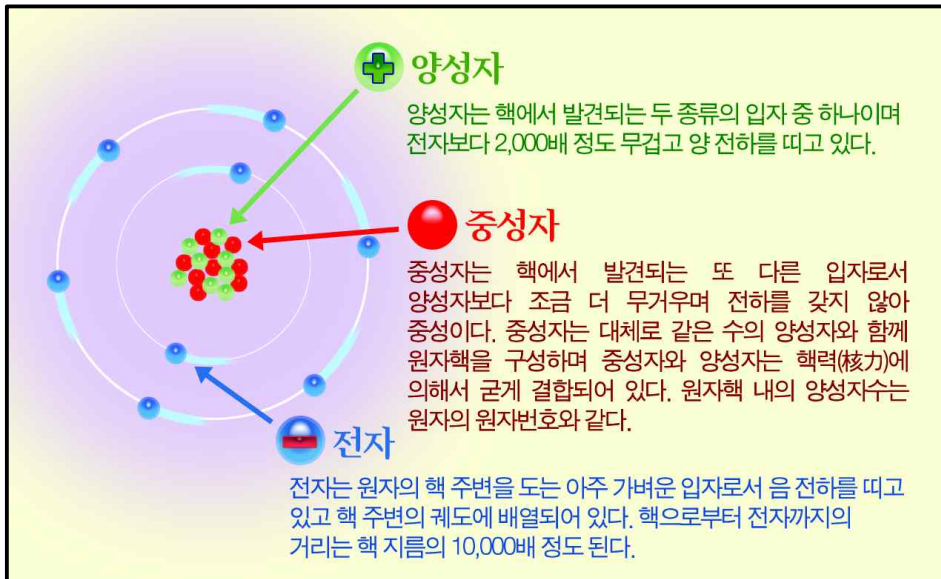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신다(지탱하신다).

(1) 온 우주, 별들, 세포들까지 그분의 말씀에 의해 유지된다.

(2) 그분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시33:9).

(3) 말씀으로 유지하신다. 말씀이 권능이 있다(바람, 마8:26-27). 심지어 병도 죽음도 순종한다.

(4) 아들에게 이런 권능이 있다(마28:18).



원자는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균형을 유지한다. 원자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핵에서 발견되는 핵력이라는 응집력이다. 같은 전하를 가진 양성자들이 핵에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알 수 없는 신비의 엄청난 응집력에 의해 굳게 결합되어 있다. 이 현상이 없다면 온 세상 만물은 다 해체될 수밖에 없다(벧후3:10-13).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죄들을 이미 정결하게 치우셨다(had purged).

(1)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히9:12-14; 요일1:7).

(2)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이 임무를 이미 달성하셨다고 한다.

(3) 그리고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히8:1): 성막에서 없는 것은 의자, 구약의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서서 섬긴다. 그리스도는 일이 끝나서 앉아 계신다.

4-11절: 천사들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왜 천사들과의 비교가 나오는가? 율법 수여 시 천사들의 역할이 있었다: 모세(신33:2), 스테반(행 7:53), 바울(갈3:19)

4절: 그리스도는 상속을 통해(시2:6-8; 슥14:9), 즉 아들이므로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었다(마

- 1:21; 빌2:9-11; 뱀전3:22). 여기의 이름은 the Son으로 보아도 된다.
- 5절: 구약에 정통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구절을 가리킴, 시2:7, 여기의 '이 날'을 바울은 주님의 부활의 날로 보았다(행13:33). 구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몇 차례 나온다(창6:2, 4; 욥1:6; 2:1; 38:7). 그러나 이들은 다 천사들이다. 'the Son'이 아니다.
- 전체적인 이야기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분이다.
-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리라"(삼하7:14, 시89:20-27), 원래는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 묘사 그러나 이 구절을 통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son of David)이라고 믿었다(마 15:22; 22:42-45; 계22:16).
- 6절: 그 처음 나신 분(눅1:15의 성령님에 의해 나신 첫 사람, 골1:18의 창조자, 계1:5의 처음 부활하신 분), 아들에게 경배하라(시97:7 참조, 그러나 명확하지 않음).
- 7절: 시104:4, 천사들은 영이요 불꽃에 지나지 않는다. 사역자들(ministers)은 섬기는 자들을 말한다. 사탄, 미가엘, 가브리엘, 모든 천사들은 영이다.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다.
- 8절: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이여'라고 말한다(시45:6-7). 시45편은 원래 솔로몬과 왕비와 들러리 처녀들에 대한 것인데 성령님은 이것을 예수님에게 적용한다. 신랑과 신부와 들러리 처녀들(45:14), 왕에게는 왕좌와 홀이 있다. 영원한 왕국(눅1:33)
- 9절: 즐거움의 기름은 성령님의 충만과 관계가 있다(딤후3:16). 주의 동료들: 멜기세덱, 아론,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에게는 이런 것이 없었다. 기름 부음: 왕, 제사장 등의 특별 임명
- 10절: 창1:1; 2:1, 두 하늘, 주의 손의 작품(시104:2)
- 11절: 현재의 땅과 하늘들은 없어진다(히12:26-27; 뱀후3:12-13; 계21:1). I AM THAT I AM. 옷같이 낡는다(사51:6).
- 12절: 하나님이 원하면 변한다(시102:25-27).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시다(사46:4; 말3:6; 히 13:8). 하나님의 연대는 끝이 없다. 천사들은 창조자가 아니라 창조물이다. 그래서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계21-22).
- 13절: 시110:1(마22:43-44, 행2:33-35 등 여러 곳에서 인용됨), 발받침(수10:24-25).
- 14절: 천사들은 구원받을 자들을 섬기는 영들이다. 가브리엘과 다니엘(단9), 미가엘과 이스라엘(단 12)
1. 죄인이 회개하면 기뻐한다(눅15:10).
 2. 아이들의 천사들이 보고 있다(마18:10).
 3. 사람들의 구원에 관심이 있다(뱀전1:12).
 4. 성도들 보호와 인도(시34:7): 아브라함과 그의 종(창24:6-7), 소돔의 뭇(창19), 이스라엘 인도(출23:20), 엘리야를 먹임(왕상19:4-5), 스가랴를 깨우쳐 줌(슌1:8-9), 막달라 마리아와 그의 동료들 위로(마28:5-6), 감옥의 베드로 인도(창12), 다시 한번 강조 시34:7
 5. 하나님의 원수들 대적: 소돔과 고모라 멸절(창19:1, 12-13), 아시리아 산헤립의 군인들 185,000명 살육(왕하19:35), 예루살렘의 사악한 무리들 살육(겔9:2, 7), 헤롯을 죽임(행 12:21-23),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화를 선포함(계8:13), 사탄과 그의 천사들 정복(계12:7-9)
 6. 메시지: 다니엘, 계시록의 요한(계1:1; 22:16)
 7. 죽는 성도들을 데려감(눅16:22)
 8. 예수님의 사역: 가브리엘의 수태 고지(눅1:26-35), 성육신 때 목자들(눅2:7-14), 광야 시험(마 4:8-11), 겻세마네(눅22:39-44), 십자가(마26:52-54), 부활(마28:1-7; 눅24:1-5; 요 20:12), 승천(행1:9-11), 영광(계5:11-12)
 9. 아마 천국에 가면 우리를 돕던 천사들을 만나 위협의 순간들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히브리서 강해 제4과

히브리서 2장

요점: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떤 자들은 천사들의 중재에 의해 주어진 율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여기서 사도는 그분께서 사람이 됨으로써 여러 목적들을 이루심을 보여 준다.

- I. 아들이 말씀하신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천사들에 의한 말씀에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은 자들도 있다(2:1-4).
- II. 다가오는 세상은 천사들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람이 되신 아들의 지배를 받는다(2:5-9). 이것은 구약성경의 성취이다(2:9).
- III. 사도는 그분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를 설명한다(2:10-18).
 - A. 성육신을 통해 구속자와 그분의 백성이 동일시되었다(고난, 시험 등에서).
 - B. 백성의 모델이 되었다.

1-4절: 큰 구원을 멸시하지 말라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대언자들과 천사들과 상대가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우리가 들은 것들: 주님에게서 직접 혹은 사도들에게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1. 이것을 구원의 상실로 여기는 자들이 있다.
2. 이것은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성도로서 섬김과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3. 3절이 이에 대해 분명히 가르쳐 준다. '우리가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4. '우리'는 기록자와 수신자들 모두를 가리키며 성도들이다.
5. 구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홀히 여기는 것이다.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이미 가진 것이 있음을 뜻한다. 여기의 히브리 성도들은 은혜로 거저 주시는 이 큰 구원을 이미 받아 의롭게 되어 안전한 상태에 있다. 그런데 구원 뒤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것은 곧 성도가 완전함으로 나가는 것이다(히6:1-2).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이다. 어린양의 피에 의해 이집트에서 탈출한 성도들의 대다수는 가나안에 이르지 못하고 중도에 죽었다(심지어 모세도).
6. 그러므로 빌2:12를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야 한다.
7.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work out your salvation)." 개역처럼 '구원을 이루라'가 아니라 이미 가진 구원을 일로, 행위로 드러내라는 것이다. 워크아웃 기업, 이미 있는 기업, 완전함에 이르는 것
8.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다.
9. 고후5:10,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10. 여기의 '우리'도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은 뒤 몸으로 행한 것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
11. 이 심판석에서 선한 판정을 받은 보상을 받는 자들이 있고 소홀히 여긴 자들은 손실을 당할 것이다.
12. 고전3:11-15
13. 여기서 보상의 손실을 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히2:2의 '피할 수 있으리요?'의 뜻이다.
14. 지옥을 피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다.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보상의 손실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요지이다. 그래서 바울은 히2:1,3에서 이 점을 명확하게 지적한다.
15. 구원받은 성도의 임무: 엡4:13-15

16.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구원은 받되 부끄러움을 당한다(요일2:28).

17. 그러면 패배의 삶에서 벗어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18. 히12:1-2, 각종 죄 처리, 예수님께 고정

19. 그리고는 히12:11-13처럼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야 한다.

2절: 구약의 율법은 천사들에 의해 제정되었다(신33:2; 시68:17; 행7:38; 53; 갈3:19).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1.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다(신32:35; 민15:30-31; 고전10:1-12).

2.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너무 쉽게 간과한다.

3. 그리스도인의 죄는 사실 불신자의 죄보다 더 나쁘다(눅12:48).

3절: 이 큰 구원(great salvation)

1. 창시자가 위대하다.

2. 큰 죄들에서 구원하므로 위대하다.

3. 지옥의 큰 위협에서 구출하므로 위대하다.

4. 사람에게 위대한 것들을 주므로 위대하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의 본성에 참여하게 함.

5.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사랑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위대하다.

6. '주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침례자 요한의 준비, 예수님의 선포, 이후 제자들

7. 이 말은 구약에는 구원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다(요일1:16-17).

8. 구약의 예표와 그림자가 실제로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말이다.

9.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사도들이다. 확증했다(행1:3). 바울은 사실 직접 계시를 받았다(갈 1:16-19).

4절: 하나님의 증언

1. 표적, 이적, 기적, 성령님의 선물들(행2:4-6; 롬12:3, 6; 고전12:4-11; 고후12:12)

2. 사도들의 증언을 확증해 준다(막16:20).

3. 그분의 뜻에 따라(고전12:7, 11)

4. 영적 선물의 본질: 총 18개, 지속되는 '칭지기 선물'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표적 선물'

a. 표적 선물(사라지는 선물)

(1) 사도, (2) 대언, (3) 기적, (4) 병 고침, (5) 타언어(방언), (6) 방언 통역, (7) 지식

b. 칭지기 선물(지속되는 선물)

(1) 지혜, (2) 영 분별, (3) 주는 것, (4) 권면, (5) 섬김, (6) 공흠을 베푸는 것, (7) 다스리는 것, (8) 믿음, (9) 가르치는 것, (10) 복음 선포자, (11) 목사 겸 교사

c. 성경이 완성되기 전인 AD 50-60년경에 어떤 사람의 대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기적을 보임으로

(1) 예수님의 사역(요일3:2; 마10:1, 7-8; 11:2-5; 요20:30-31)

(2) 바울의 사역(롬15:18; 고후12:12)

(3) 사도들의 사역(히2:4)

d. 처음에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 기적 선물들이 필요하였지만 성경이 완성되어 진리와 오류를 구분해 주면서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다.

e. 성경 기록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마지막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보여 주었다(딤후3:15-16).

5. 이런 표적들은 한시적인 선물, 완전한 말씀이 AD 90년경에 주어진 이후로는 말씀을 통해 확증한다.

히브리서 강해 제5과

히브리서 2장

대언자들(1:1), 천사들(1:4-14), 2:1-4는 삼입 구절, 그리스도의 심판석, 보상 들

5절: 여기서부터 기록자는 1장의 이야기를 연결해 나간다.

1. 천사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영광과 존귀가 그분에게 주어졌다: 이 세상의 통치
2. 원래 세상의 통치는 사람에게 주어졌고(2:6-8) 실은 그리스도에 의해 발휘되었다.
3. 유대인들의 반박: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냐? 모세 같은 영광도 없다.
4. 이에 사도는 성육신의 필요와 목적을 설명해 줌.
5. 그분은 사람을 위해 오셨으므로 반드시 사람이 되어야 하며 죽지 않는 천사가 될 수 없다.
6. 또한 고난도 당하고 슬픔을 알아야 한다(2:10-17).
7. 다가오는 세상(천년왕국과 신천지)이 있다.
8.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을 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켰다.

6절: 여기서 기록자는 유대인들이 잘 아는 시8:4-6을 인용한다.

1. 바울은 모든 것이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지만(창1:26) 아직까지 그런 적이 없음을 보여 주려 함(8절).
2.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사람의 완전 통치가 어느 정도 좌절됨, 그래서 결국 그런 통치와 지배는 메시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전15:47의 둘째 사람). 사람이 되신 메시아는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다.
3. 시8:4-6, 창조 세상을 통해 창조주를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을 방문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7절: 사람은 천사보다는 위치, 힘 등에서 조금 낮게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 그분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벧후1:4).

1. 사람에게 이런 영광과 존귀를 주셨다: 온 땅에 사람 같은 창조물은 없다(말, 이성, 사고, 창조 능력).
2.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다(창1:26).

8절: 그런데 아직까지 모든 것이 사람의 지배하에 있지 않다.

1. 악한 짐승들
2. 재앙들(폭풍, 태풍, 산불, 눈사태 등)

9절: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런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다. 유대인들의 주장: “그분은 사람이다. 고통과 죽음을 보았다. 천사는 안 그렇다.”

1. 그분은 사람이 되셨다(히2:16).
2. 영광과 존귀: 사람으로서의
3. 목적: 모든 사람(every man)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요3:16; 롬8:3).
4. 여기서의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속죄가 무한대임을 보여 준다(요일2:1-2). 제한 속죄 No!

6-9절 결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심으로써 원래 창조 계획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사람의 위치를 회복시키신다.

10절: 메시아 고난의 필요성: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하려고, 그분이 죄가 있다는 말이 아니다. 사람의 슬픔과 고통을 모르는 구원자는 하나님의 구원자로 적합하지 않다. 사람과 개미의 대화

1. 사람의 시험과 유혹을 다 이겨냈다(히2:18; 4:15).
2. 그래서 그런 것을 겪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다.
3. 고통과 죽음을 통해 속죄를 이룰 수 있다(히5:8-9).

4. 즉 그리스도는 모든 면에서 참 사람이 되어야 한다(죄만 빼고).

5. 참 하나님, 참 사람(40일 금식, 희로애락)

11절: 거룩히 구분하시는 분은 예수님(히10:10), 거룩히 구분된 자들은 우리, 이 둘이 다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 한 가족, 한 본성, 그래서 그분과 성도들은 형제들이다.

12절: 시22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메시아 시편, 1절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말함, 시22:22,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람들 사이에는 연합이 있어야 한다(2:14).

1. 그분은 그들과 자기를 동일시하였다.

2. 주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이름

3. 즉 구약에서 이미 메시아는 그들을 형제라고 부른다(마12:48-49; 25:40; 28:10; 눅8:21; 요20:17).

4. 여기의 교회는 단순히 구약시대 형제들의 모임이다(행7:38의 광야에 있던 교회와 비슷함). 신약의 교회는 마16:18 이후에 나오고 행2장에서 출생된다.

5. 그래서 시22:22는 교회라 하지 않고 회중이라고 한다.

13절: 신뢰와 자녀들

1. 사8:17, 시18:2; 삼하22:3 등, 참 사람이기에 아버지를 신뢰한다.

2. 사8:18(사22:30; 53:8; 마1:1)

10-13절 결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사람이시다.

14절: 사람이 되셔야 하는 가장 큰 이유

1.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삶과 피를 공유한다.

2.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들에 참여하심.

3. 처녀 탄생의 신비

4. 육신을 입어야 죽은 뒤 부활해서 마귀를 멸할 수 있다. 천사는 죽지 못한다.

5. 마귀는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죽음을 가져온 장본인을 멸하고 또 마귀의 일들을 멸한다(요일3:8).

15절: 죽음의 속박에 놓인 자들을 구원하려 함

1. 죽음은 공포이다: 암의 고통, 죽음의 어둠, 미지의 세상, 차가움, 고독, 하나님의 심판, 심판 이후의 지옥, 이것은 평생 동안의 공포이다.

2.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들을 구출해서 죽음이 없는 세상으로 옮기려 하심.

3. 죽음의 원인인 죄 제거(고전15:54-57; 요1:29)

히브리서 강해 제6과

히브리서 2장

16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 천사가 아니라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다(마1:1).

1. 개역을 비롯한 다른 성경들의 오역,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대단히 큰 오역

17절: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합당함

1. 몸과 혼과 성품과 위치 면에서
2. 그래야 긍휼을 느끼는 대제사장이 되신다.
3.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소망: 속죄일의 속죄(레16장), 오직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시다.
4. 대제사장: 아론의 후예, 종교의 최고 권위, 찬란한 옷(출29:5-9; 레8:2), 재판관(신17:8-12; 19:17; 21:5; 33:9-10). 지성소에 유일하게 들어감(레16:2)
5. 하나님에 관한 일: 희생 예물, 섬김, 중보
6. 화해를 이루기 위해(고후5:18-21)). 속죄=atonement=at-one-ment(하나가 됨)

18절: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음으로 시험받는 자들을 구조할 수 있다.

1. 이것은 시험받는 사람들을 좀 더 긍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음을 뜻한다(히4:15-16).

14-18절 결론

1.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그분의 것만은 못하다.
2.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형제이다.
3. 그러므로 시험을 당할 때에 그분을 바라보자(히12:2).
4.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상황 재분석
 - a. 율법 종교를 떠나 구원 받음
 - b. 그런데 주변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음
 - c. 환난이 있음(요16:33)
 - d. 구원은 쉬웠으나 성화가 어려움(갈3:1, 3)
 - e. 갓 태어나서 성장이 안 됨(롬8:29)
 - f. 세상과 분리가 되지 않음
 - g.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 (1)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자(요10:10), (2) 겨우 구원만 받아 육신적인 자(고전3:1-2), 후자에게는 징계가 임한다.
5. 히브리 성도들의 문제: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히6:1)
 - (a) 그리스도의 고난 생각(히12:2), (b) 보상 생각, (c) 징계 생각

히브리서 3장

요점: 유대인들은 율법 시스템을 가져온 모세를 대단히 귀하게 여겼다. 또한 모세 다음으로는 대제사장을 귀하게 여겼다. 이에 바울 사도는 기독교는 유대교의 모세나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분을 창시자로 두고 있음을 보인다(3장부터 4:13까지).

I. 그리스도와 모세의 비교(3:1-6)

II. 그 결과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은 모세를 거역한 것보다 더 위험한 결과를 가져온다(3:7~4:1-13).

- A. 구약시대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강박하게 행하면 안 된다(3:7-11).
- B. 불신을 주의해야 한다(3:12).
- C. 서로 권면해야 한다(3:13).
- D. 믿음의 확신을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14).

E. 이집트를 탈출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거의 다 불신으로 광야에서 죽었다(15-19).

* 성경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 ‘수신자가 누구인가?’ (딤후2:15)

마11: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여기의 ‘너희’는 누구인가?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되면 성경의 다른 말씀과 모순이 된다. 구원은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선물이지 멍에를 지고 일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멍에나 십자가를 쳐도 구원은 안 이루어진다(롬4:5). 여기서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마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여기의 초청은 죄인들을 향한 것이다. 행위로 구원받기 위해 노력하는 죄인들에게 주는 구원과 안식, 이것은 공짜로 얻는다. 이것은 ‘구원의 안식’,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 승리와 안식을 얻으려면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우며 수고해야 한다.

28, 29절의 안식은 다른 의미, 28절은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 29절은 우리가 우리 혼을 위해 찾는 안식, 서로 다른 안식이다. 28절의 안식을 얻은 뒤 29절의 안식을 얻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많다.

1절: ‘그러므로’는 히2:18

히브리서를 오해하는 사람들: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지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거룩한 형제들=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말한다.

즉 이들은 구원은 받았으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의 손실을 당할 자들이다(히6:4-6).

‘거룩한 형제들’은 결코 그들이 죄를 짓지 않음을 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히6:1이 불필요함 거룩함은 구분되었다는 말이다(엡2:6).

참여하다(partake)는 ‘나누다’, ‘동일한 실체에 속해 있다’는 뜻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벧후1:4)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골1:12)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고전10:17)

그러므로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들이다.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가짜가 아니다.”

히브리서 강해 제7과

히브리서 3장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의 3중 직무: 대언자(갈보리 십자가까지), 제사장(재림까지), 왕(1000년 왕국)

이 예수님은 현재 '우리' 즉 믿는 성도들의 대제사장이다. 죄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은 갈보리에서 다 끝났다. 지금 하늘의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중보하지 않고 성도들을 위해서만 하신다(요 17:9).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께 나오지 않으면 그분의 중보를 받을 수 없다.

그분은 그런 자들에게 심판자로만 계신다(히9:27-28).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현재 성도들의 성화를 위해 대제사장으로 중보하고 계신다.

우리의 신앙고백, profession은 '같은 것을 말한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같은 것을 말한다(히 11:13).

사도: 보내어진 자, 그리스도를 가리켜 사도라고 한 것은 여기 밖에 없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다. 즉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모세도 이 역할을 함)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표한 자(아론),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세와 아론의 직무를 모두 수행함, 하나님과 사람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나 아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2절: 그리스도는 신실한 분이셨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Faithful). 이것은 그분이 자신과 자신의 창조 세계에 보이는 충성을 말한다(신 7:9; 시36:5; 89:1-2; 애3:22-23; 딤후2:13).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러 분야에서 찾을 수 있다.

1. 자연에서(창8:22; 시119:90)
2. 자신의 친구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데서
 - a. 아담(창3:15과 갈4:4)
 - b. 아브라함(창15:4; 18:14와 창21:1-2)
 - c. 모세(출3:21-22와 출12:35-36)
 - d. 여호수아(수1:1-5와 수23:14)
 - e. 다윗(삼하7:12-13과 눅1:31-33)
3. 자신의 원수들에게 경고하시는 데서
 - a. 아합(왕상21:17-19와 왕상22:34-38)
 - b. 이세벨(왕상21:23과 왕하9:30-37)
4. 시험의 때에(고전10:13)
5. 자녀들을 징계하실 때에(시119:75; 히12:6)
6.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실 때에(요일1:9)
7.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에(시143:1)
8.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에(고전1:8-9; 살전5:23-24; 살후3:3)
9. 자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서 지켜주실 때에
 - a. 아사 왕(대하14:9-15)
 - b. 여호사밧 왕(대하 20:1-25)
 - c. 히스기야 왕(왕하19:32-35)

Faithful: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이 말은 '믿음이 충만한 것'을 뜻한다. 갈3:9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믿음에서 견고하였으므로 성도들이 그와 함께 복을 받은 사람들라고 말한다. 이런 특성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격과 믿음직함 등을 표현하는 데도 사용되었다(행16:15; 고전4:17; 엡6:21; 골4:9; 뱀전5:12).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빌2:19-22), 오네시보로(딤후1:15-18), 주님(딤후4:16-18)

사람들 중에서 신실한 자는 모세이다. 모세는 완전한 자가 아니라 신실한 자였다(고전4:1-2).

그는 죄를 짓고 분노도 내고 못하겠다고 하소연도 하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신실하였다.

3-6절: '집'이라는 말이 6번 나옴,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함

모세는 구약의 백성(집), 그리스도는 신약의 백성(집)

그런데 모세는 구약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3:5).

반면에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약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써 신실하였다(3:6). 비교가 안 된다.

4절: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창2:1; 행17:24)

그런데 6절 끝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우리가 끝까지 굳게 붙들면 그분의 집이다." 끝까지 굳게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구원을 잃는가? No!

여기의 if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지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이 구절은 구원을 다루는 구절이 아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구원이 아니라 소망의 확신과 신뢰이다. 성경을 자세히 보라.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붙들면"이다.

히브리서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동족들에게 왕따. 타협하려는 마음, 성화 포기...그러면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잃는다. 뱀전4:12-13

어려움이 닥치면 예수님과 함께할 영광을 보고 기뻐해야 한다. 그분은 신실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실하기 위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달려 있다.

우리의 보상은 우리의 신실함에 달려 있다. 확신을 굳게 붙들고 소망을 기쁨으로 유지해야 한다.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킹제임스 성경, 바른 교회 기쁨을 잃은 경우, 의심이 생기는 경우, 낙담이 되는 경우

1. 갈보리를 뒤돌아보라: 그리스도의 값진 희생
2. 위를 보라: 하나님의 왕좌에서 증보하시는 주님
3. 앞으로 바라보라: 보상의 시간이 온다(히12:3)
4. 롬8:18을 기억하라
5. 히10:35-37

7-11절: 신실하지 않은 자들의 사례, 이 구절은 시편95:6-7,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 그분의 양들이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도 마음이 딱딱한 자들이 있다. 변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고의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 이런 경우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뜻을 돌리게 함)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다(히6:6). 계속해서 고의로 불순종하는 경우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심판 구약의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어린양의 피로 구원받고 속박에서 해방됨, 하나님이 그들의 길목에 홍해를 두셔서 그들이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게 하심. 구원은 이미 끝남. 이제 목표는 가나안: 구름 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 물, 옷 제공

그런데 남자들 가운데서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감.

성장하지 않음,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함(히5:12), 이미 얻은 구원을 소홀히 여김(히2:3), 계속해서 거역함,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

구체적인 사례(고전10:1-13)

히브리서 강해 제6과

히브리서 3장

7-11절: 신실하지 않은 자들의 사례, 이 구절은 시편95:6-7,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 그분의 양들이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도 마음이 딱딱한 자들이 있다. 변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고의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

10-11절: 하나님의 근심(엡4:30), 그 결과 가나안의 안식 No! 여기의 안식은 구원의 안식이 아니라 성화의 안식, 쟁취의 안식, 이들은 땅, 곡식, 포도즙의 보상을 누리지 못한다.)

누가 중간에서 죽었는가? 믿음이 없는 자들(3:18-19),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 무시(민13-14장), 땅은 정말로 좋고 열매도 좋은데 우리는 못 간다. 아낙 사람들을 보니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13절의 엄숙한 경고를 우리에게 준다.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

구원을 잃는다는 것이 아니다. 영적으로 패배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교제가 끊어진다(요일1:7) 구원받은 이후보다 지금의 상태가 더 나은가? 날이 갈수록 더 나은가?

광야에 쓰러져서 시체가 된 자들, 불순종의 결과

호렘에서 가데스바네아(약속의 땅 입구), 열하루 길(신1:2), 그런데 이들은 불순종하면서 38년을 헤매다가 결국 40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감. 그런데 겨우 2명만 가고 나머지는 시체가 됨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히4:1).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다. 구원이 끝이 아니다. 가나안의 안식을 누리야 한다.

성경 문제: 히3:16, 18절

개역/개정 16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흥정역: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격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자가 그리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개역/개정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흥정역: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개역/개정 요3:36,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흥정역: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뱀전2:2

히브리서 4장

4장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부분(4:1-13)에서 사도는 3장에서처럼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권면한다. 둘째 부분(4:14-16)에서 사도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묘사한다.

I. 사도는 히3장에 있는 안식에 대하여 설명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여전히 안식이 남아 있으므로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됨을 보여 준다(4:1-13).

II.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 준다(히4:14-16).

4장의 핵심: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안식, 성화의 안식,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보상

구원받은 이후에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전3:1-3). 늘 패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사람의 특징(히5:12).

영원토록 아이로 남아 있는 성도: 본인의 비극, 예수님의 비극

5년 전, 10년 전보다 지금 더 나은가? 승리하고 있는가? 하늘나라의 보상이 쌓이고 있는가?

요15:11, 16:24의 예수님의 권면

히3의 끝부분에는 구원받아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패배를 보여 준다. 안식 No!

1절: 경고와 염려의 말씀

3:11-4:11에는 안식(rest)이라는 단어가 모두 11번,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한다.

세 종류의 안식이 있다: 과거(구원, 죄의 형벌로부터의 도피), 현재(성화, 죄에 대한 승리), 미래(하늘 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

과거와 미래의 안식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에 의해 결정됨. 구원받으면 영원히 고정됨
현재의 안식은 섬김과 승리와 평안의 안식(성화 과정), 믿음으로 수고하고 노력하며 신실하게 행할 때 얻는 안식, 이것은 잃어버릴 수 있다.

9절의 안식: 미래의 안식(계14:13)

10절의 안식: 과거의 안식(마11:28의 안식), 내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안식(롬4:5)

11절의 안식: 이것은 힘써서 얻는 안식(성화), 믿음으로 노력하고 수고하며 순종할 때 얻는 안식
요10:10의 후반부 더욱 풍성한 생명의 안식

화평 혹은 평안에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과의 화평(롬5:1): 구원, 내 행위와 상관없다.

하나님의 화평 혹은 평강(빌4:7): 성화, 앞에 조건이 달려 있다.

마11:28-29의 두 안식, 첫째 것은 “오라”, 둘째 것은 “메라”

히브리서 강해 제9과

히브리서 4장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결정(신1:22-30), 그들의 가나안 안식은 이것에 달려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다(신1:32).

그 결과(신1:34-35), 이것이 바로 히3, 4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핵심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제부터 필요한 것: 현신, 봉헌, 순종, 내어맡김, 어떻든 이런 것이 필요하다.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라. 여기서도 행복해야 한다.

2-4절: 복음의 말씀이 믿음과 결합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유익이 되지 못한다(신1장의 이스라엘).

(1) 많은 이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 (2) 믿으려 하지 않는다. (3) 순종하려 하지 않는다.

승리의 안식은 일이 끝나야 얻는다. 심지어 하나님도 6일 창조의 일을 마친 뒤에 안식하셨다(히4:4).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은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다. 단 신실하게 일한 자들에게만.

3절은 간단한 if 절이다. 유일하게 킹제임스 성경만 if를 사용한다. 다른 역본들은 단순히 시95:7,8을

인용하였다. If가 없으면 수고해서 얻는 안식이 있음이 표현되지 않는다. “들어오려면”이라는

if절은 들어가는 일이 있음을 뜻한다. KJB만의 독특함

구원받은 뒤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그 땅을 소유하라” 소유하려면 쟁투해야 한다.

히4:8의 가나안 안식은 하늘나라의 안식이 아니다. 여기의 ‘예수’는 여호수아(행7:45)의 그리스식

표현, 영어 KJB의 또 다른 독특함, 구약의 여호수아와 신약의 여호수아 비교. 구약의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안식을 주었지 하늘나라의 안식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9절의 하늘나라의 안식이 나온다.

안식의 원천: 하나님의 창조 안식

	과거	현재	미래
구약 이스라엘	이집트 탈출 구원 안식	가나안 안식을 위해 수고 하고 노력해야 함	천국 안식
신약 교회	구원 안식	성화 안식을 위해 수고하 고 노력해야 함	

1절 “혹시 어떤 사람이 성화(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염려함”

11절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부지런히 힘써야 한다.”

성도와 제자

성도와 제자는 다르다. 예수님의 사역 당시 구원받은 자들이 많았으나 제자로 섬긴 자들은 많지 않았다.

심지어 제자들 중에서도 여럿이 그분을 버리고 떠났다(요6:60, 66-69).

12명의 제자들(마10), 제자의 자격(마10:16, 24, 38절):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섬김이다.

베드로의 경우 자기 형제 안드레의 인도로 예수님을 만남(요1:42). 아마 이때 메시아를 만나서 구원받았

음. 그러나 아직 제자는 아님, 여전히 같은 직업, 친구 관계 등

둘째 만남(막1:14 이후), 침례자 요한의 투옥 이후(막1:17-18)

제자(disciple)와 훈련(discipline)은 같은 어원: 명에를 지고 훈련을 받아야 제자이다.

마8:19, 20을 보라. 네가 대가를 치를 수 있느냐?(눅14:26-27)

구원과 제자의 길은 다르다. 제자의 길은 장밋빛 인생이 아니다. 특히 섬기는 자(minister)의 길은
힘난하다.

제자의 길에는 보상이 있다(마19:27-29).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구원) 또 제자로 부르셨
다(성화).

5-6절: 시95:11, KJB의 유일한 if,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가야 할 자들이 있다. 믿지 아니하여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다.

7-9절: 여호수아가 드디어 가나안에 이들을 데리고 들어감. 그런데 가나안 정착 후 400여 년이 지난 뒤 시편 기자는 가나안 안식 말고 다른 안식이 있다고 말함, 이 안식은 천국의 안식(9절) '다윗의 글'은 꼭 다윗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시편을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 혹은 다윗의 시편

10절: 최종 안식

11절: 성화의 안식, 부지런히 힘을 써서 쟁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광야에서 패배를 당하고 멸절된다.

12-13절: 우리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폐부를 살필 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피할 수 없다. 하나님, 사람, 죄, 그리스도, 사탄, 마귀, 구원, 성화, 보상, 심판, 저주 등이 모두 말씀에 담겨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므로(마4:4)

권능이 있다: 천지 창조, 인간 구속, 휴거와 부활

양날 달린 칼: 양날의 '날'은 입을 뜻한다. 집어삼킨다. 그래서 칼은 폐부를 깊숙이 찌른다(전12:11; 계1:16).

혼과 영을 찢러 둘로 나눈다: 성경의 영혼육(창2:7; 살전5:23), 영과 혼의 구분이 쉽지 않으므로 비물질적인 요소의 영혼과 물질적인 요소의 육으로 나누려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 자기,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관으로서의 육과 혼과 영이 있음을 가리킨다. 조직신학 40, 41과 참조, 뼈와 관절을 찢어서 나누고 심지어 뱃속의 골수까지 구분한다. 사람에게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다.

12절 끝과 13절은 말씀을 의인화해서 표현함,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

심판 날 하나님 앞에 서면 시시비비가 가려진다. 지난 20년 동안의 성경과 교회 사역

위선, 교만, 거짓, 사기, 경멸, 자기 의 등이 모두 드러난다. 그래서 성도들은 조심해야 한다.

히브리서 강해 제1과

히브리서 4장

12-13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셔도 안 믿는다(눅16:29-31).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의해 온다(롬10:7).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다(구약의 이스라엘을 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판단한다. 그런데 그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실패한다(여호수아기의 아간).

13절에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극도로 부패하여 제대로 볼 수 없다(렘17:9). 그래서 부드러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의 죄와 위선과 악을 보여 준다.

4장 13절까지의 결론: (1) 하나님은 창조 사역 이후 안식하셨다.

(2) 아들 예수님도 구속 사역 이후 안식하셨다.

(3)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말씀을 통해 안식할 수 있다.

(4) 우리는 반드시 이 예수님과 상관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히4:14부터 5장은 우리를 돕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믿음 여정의 첫발을 떤 것이다. 하나님의 목표: 우리가 자신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하는 것(롬8:29), 성화를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른 것(엡4:13)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쫓아가고 있다(빌3:12). 이 일을 돕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일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지키고 증보해 주는 대제사장: 대언자, 제사장, 왕의 3중 직무,

그 이유: 우리에게 여전히 죄가 남아 있다.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그분의 증보 사역이 필요하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다. 보상이 있다.

14-16절: 대제사장의 특성(15절), 너무 근엄해서 다가가지 못하면 소용없음

(1)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시다(14). 비교 불가

a.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시다.

b. 아론과 제사장들은 성막과 성전에만 들어갈 수 있었으나 예수님은 하늘들을 통과하여 셋째 하늘에 들어가신 분(히8:1, 5절)

(2) 연약함의 감정으로 손을 댈 수 있는 분(막5:25의 혈루증 여인, 33의 여인)

(3) 모든 점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되 죄는 없으신 분: 동병상련, 인간의 사정을 아신다.

(4)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왕좌에 아무 때나 갈 수 있다. 예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 과거의 제사장들은 휘장까지 갔다.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차례만 휘장 안으로 갔다. 이에 비하면 놀라운 특권이다.

(5)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므로 우리는 신앙 고백을 끝까지 붙들 수 있다.

(6) 아무리 어려움과 시험이 커도 뒤로 물러갈 필요가 없다(16절).

히브리서 5장 요약

사도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2:16-18; 3:1; 4:14-17)을 계속해서 설명한다.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은 필수적인데 기독교에도 그러함을 보여 준다. 그런데 기독교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지위나 성품이나 희생 예물 측면에서 유대인 대제사장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I. 유대인 대제사장의 자격(5:1-4).

A. 하나님에 의해 임명을 받아 예물을 드린다(5:1).

B.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5:2).

- C. 하나님께 드릴 헌물이 있어야 한다(5:3).
 - D. 스스로 이런 존귀를 취할 수 없다(5:4).
- II. 주 예수님에게도 이런 자격이 있다(5:5-10).
- A.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으로 아론의 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나다(5:5-6, 9-10).
 - B.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는 분이시다(5:7-8).
- III. 할 말이 많지만 그들이 이해할 수준이 되지 못하므로 말하기 어려움(5:11-14).

히브리서 5장

- 1절: 구약의 대제사장의 임명과 임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들을 해결하려면 대제사장이 필요함 그런데 스스로 대제사장이 될 수는 없다. 하나님에게서 임명을 받아야 한다(출28).
- 희생물은 바른 장소에서 바른 사람에 의해 드려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음 제사장과 희생 예물의 존재: 사람은 유죄이다. 대신 속죄가 필요하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과 예물은 불완전하여 계속해 드림.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은 제사장과 희생 예물이 되어서 단번에 모든 것을 끝내셨다.
- 2절: 대제사장의 자격: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만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자는 용서하지 않음(출21:12-14), 알지 못하고 지은 죄(레4:2, 13, 22, 275:15, 18; 민15:27-31), 도피 도시의 경우도 마찬가지
- 스스로 연약함에 싸여 있어서 백성과 동일시 됨
- 3절: 그는 먼저 자기를 위해 예물을 드리고 민족을 위해 드림(레16; 히9:7), 여기에 대해서는 9-10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 4절: 아무나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야만 가능하다.
- 5-10절: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님 소개와 비교
- 5절: 예수님도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지 않고 임명을 받았다(요8:54). 시2:7, 행13:33-34를 봐도 이 구절은 출생이 아니라 부활을 뜻함. 부활해서 대제사장이 되심
- 6절: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시110:4), 히7:3, 인간 제사장과 다르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지닌 분이시다. 시110은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실 것 보여줌.
- (1) 영원한 제사장: 레위 제사장 체계의 후예가 아니다. 멜기세덱은 죽지 않는다(히7:1-3).
 - (2) 다른 계통의 제사장: 멜기세덱(창14:17-24, 시110:4), 왕이면서 제사장(히7:10)
- 7절: 지상 사역 기간에 기도하심(요12:27), 육체의 사망을 피하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영히 분리되는 둘째 사망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심. 그리고 응답을 받아 부활하고 승천하심 왜 그리 기도하셨는가? 그분이 죄가 되셨기 때문이다(고후5:21; 뱀전2:24).
- 8-10절: 순종을 통해 완전해지셨다. 죄가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자와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뜻이다. 즉 직무를 완전히 수행하게 되었다. 구약의 제사장 중에 영원한 구원을 준 존재는 없다.
- 결론: (1) 그리스도는 아론과 그의 후예들과는 상대가 안 된다. (2)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3) 그러면 왜 히브리 성도들은 율법주의로 돌아가려 했을까? (4)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는 것을 원치 않음. 영혼의 자유를 주는데 과거의 속박을 그리워 함(만나 대신 오이, 부추, 수박이 생각남, 민11:5).

히브리서 강해 제11과

히브리서 5장

11-14절: 성장하지 않는 성도들의 특징

사도 바울은 지금 하늘에서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무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이해할지 걱정이 된다. 그들은 듣는 것이 둔하다(dull). '게으르다'(6:12)와 같은 말

1. 말씀에 둔하다(11절). 이들은 말씀에서 떨어져나가기 시작했고(히2:1-4) 의심하고 있다(3:7-4:13). 그 결과 듣는 일에 둔하다. 즉 듣고 소화하고 행할 능력이 없다.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베레아 성도들과 대조가 됨(살전2:13; 행17:11-12). 성경에 대한 모든 것이 흥미가 없다.
2. 나눌 능력이 없다(12절 초반). 가르치는 은사(선물)는 없어도 누구나 기회가 주어지면 복음과 말씀을 나누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은 또 다시 기초를 배워야 한다.
3. 아기 음식만 먹어야 한다(12-13절). 단단한 음식은 꿈도 못 꾸고 젖을 먹어야만 한다. 젖은 말씀들의 기초 원리를 뜻한다: 그리스도의 탄생, 삶, 죽음, 부활, 승천 등. 단단한 음식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을 공부하는 것, 젖은 언제라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신약의 요한복음만 내내 공부하는 것, 이제는 구약의 레위기, 에스겔서도 공부해야 한다.
4. 말씀 사용이 미숙함(14절).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목사들을 잘 구분해야 한다. 말씀 구분(딤후2:15), 경륜 구분, 오순절 은사 운동, 로마 카톨릭 교회, 재림의 징조, 이스라엘의 역사 등

육적 감각들이 중요하듯이 영적 감각들도 중요하다.

시34:8, 벰전2:3, 마13:16

영적 감각들을 훈련하는 것(딤후4:7-8)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은 이것을 하지 못했고 지금 히브리서의 수신자들도 비슷한 길로 가려 함. 양다리 걸치고 산다.

히브리서 6장 요약

사도는 5장에 이어서 성숙함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한다.

- (1) 초보 교리를 떠나 성숙함으로 나아가자(6:1-3).
- (2) 구원받은 뒤에 극도로 배교하면 결국 죽음에 이른다(6:4-6).
- (3) 자연계에서의 예: 그리스도의 심판석(6:7-8)
- (4) 비록 그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구원과 동반된 더 좋은 것들이 있다(6:9-10).
- (5) 그들이 열심을 내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이 되기 원한다(6:11-12).
- (6)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사도는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을 보여 준다(6:13-20).

히브리서 6장

이 세상에 나오려면 반드시 베이비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베이비로만 남으면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다.

베이비로 태어나는 목적: 성장하기 위함. 벰전2:2, 그래서 우리는 완전함으로 나아가야만 한다(6:1).

1-3절: 영적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의 것들(여기서는 6가지)을 두고 떠나야 한다.

1. 회개와 믿음(행20:21), 영적 생활의 시작
2. 침례(성령 침례, 물 침례), 안수는 구약에서 희생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을 통해 많이 나온다(레 16:21). 이런 예식은 안수를 통해 사람의 죄를 무죄한 짐승에게 옮기는 것을 상징했다. 안수는 또 축복하는 것(창48:18), 임직식(신34:9) 등과 관련해서 사용되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아이들과(마19:13, 15) 병자들(마9:18)에게 안수하셨다. 초대 교회에는 안수가 병 고치는 것, 성령님을 받는 것(행9:17), 교회에서의 특별한 일을 위해 사람을 구분하는 것(행6:6), 선교사 파송(행 13:3) 등과 상관이 있었다. 그런데 안수는 무슨 마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 교회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 안수했을 뿐이다. 안수는 보통 기도와 함께 이루어졌다. 현대 교회에서 목사나 집사에게 안수한다는 것은 '직무에 임명하다'를 뜻하는 Ordination을 말하며 이때에 손을 얹느냐 얹지 않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확실한 부르심(소명)을 가지고 지역 교회를 통해 하나님에게 임명받는 것이 핵심이다.

3. 부활(행24:14-15; 요5:24-29; 계20-4-6)과 심판(행17:30-31), 미래와 상관이 있음

히브리서 강해 제1과

히브리서 6장

1-3절, 초보 원리들을 버려두고 완전함으로 나가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뒤 바울은 4-8절에서 이들을 일깨우려고 충격 요법을 사용한다.

4-6절: 이 구절들과 히10:26-39절은 구원을 잃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전유물. 그러나 No!!!!!!
이 구절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

1.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자들의 주장: 사도는 믿다가 완전히 떨어져나가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 말한다. 그들은 완전히 배도하여 옛 생활로 돌아가므로 구원을 잃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 '알미니안 주의의 가르침', 구원 취소 교리: 큰 믿음 교회의 변OO 목사 등
 - a. 이것은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과 배치가 된다(히5:9; 7:25; 9:12, 15; 13:5-6; 요 5:24; 10:26-30; 롬8:28-39). 히6:13-20에서 17절: 계획의 불변, 18절: 거짓말하실 수 없다. 19-20절: 소망은 혼의 닳과 같이 고정되어 있다.
 - b. 아이러니하게 구원 취소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은 또한 구원을 잃은 뒤에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말하지만 이 구절은 그리될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한다(6절을 보라).
2. 어떤 이들은(칼빈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한다. 즉 Professors
 - a. 그런데 이들은 '한 번' 빛을 받은 자들이다(히6:4). 여기의 '한 번'은 사실 영원히 '한 번'을 말한다. 히브리서의 한 번의 용례(히7:27; 9:12, 26-28; 10:10 등)
 - b. 이들은 하늘의 선물을 맛보았다(6:4).
 - c.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보았다(6:5).
 - d. 맛보기만 하고 먹지는 않았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히2:9).
 - e. 이들은 성령님에게 참여한 자들이다(6:4). 비교 히3:1(거룩한 형제들), 3:14
 - f. 이런 것들로 보아 이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자들이다.
 - g.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주님에게 새로이 불명예를 가져오고 그분을 모욕할 수 있겠는가(6:6)? 불신자들이 그분을 새롭게 십자가에 못 박는가? 항상 못 박는다.
3. 어떤 이들은 이런 죄가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대에만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을 때까지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그들은 말한다. 그러면 왜 사도는 지금 영적 성숙과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무를 연결하고 있는가? 지금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면 이런 권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
4. 환난기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 No!(히12:23)
5. 그러면 이 구절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6절의 if와 9절의 though이다.
 - a. 사도 바울은 충격 요법의 가정법을 사용하여 구원받는 자는 구원을 잃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 히6:9가 이를 증명한다. 롬9:3의 가정법도 마찬가지로의 충격 요법
 - b. 6:4에서 사도는 갑자기 '우리'(we, us)에서 '자들'(those)로 주체를 바꾼다(우리말 성경에서는 5절). 즉 지금 그는 무언가를 가정하려 하고 있다.
 - c. 우리(히1:2-3; 2:1; 3:1, 14; 4:14; 4:16), 매우 중요한 '우리'(히10:19-25)
 - d. 히10:26의 '우리'는 누구인가? 이들은 히10:19-25의 '우리'이다.
 - e. 이 사람들이 고의로 죄를 짓지 않으려면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만 한다(23절).
 - f.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히브리서의 교훈(히10:34-35): 그리스도의 심판석(고전 3:12-17)
 - g. 그러므로 이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보상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는 자들이다.
 - h. 따라서 히브리서는 절대로 구원을 잃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i. 자라야 한다. 완전함으로 나가야 한다(벧후3:18).

j. 그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신다(히10:30; 12:5-11). 그런데 성도가 심한 죄를 지으면 곧바로 죽이신다: 고라와 그 무리들, 나답과 아비후, 아나니아와 삽비라

k. 그리스도인들도 (육체적)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을 수 있다(요일5:16-17; 고전5:5; 고전 11:28-30; 딤후1:19-20; 딤후2:16-17; 요삼9-10)

히브리서 6장은 산 믿음과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열매)에 대해 말한다.

5장 12-14절: 성숙하지 못한 자들 이야기가 나온다.

6장 1-3절: 그러므로 기초 원리를 반복해서 놓지 말고 완전함으로 나가자.

과거에 구원받는 이후에 이것이 믿기지 않아 자꾸 회개하고 구습으로 돌아가는 일을 더는 하지 말자.

4-6절: 충격의 가정법, 떨어져 나간다면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이유 6절 후반부

7-8절: 4-6절과 동일한 맥락, 열매가 없으면 불태워진다.

9절: 비록 우리가 충격 요법을 써서 이같이 심하게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 즉 선한 열매(행위)가 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은 너희에게 닥치지 않는다. 고전3:13-16 평행 구절

10절: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11절: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내어 너희가 끝까지 소망의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원한다. 즉 너희가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많이 맺어 보상을 많이 받기 바란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미 구원은 끝났다.

흠정역 9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열매)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문맥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이다.

개역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개역성경은 아예 말이 안 된다).

구원을 잃을 수 없는 이유

1. 사람의 힘으로 얻지 못한다(엡2:8-10; 딤후2:14).

2. 한 가지 죄를 지으면 모든 죄를 지은 것과 같다(약2:10). 그러므로 무슨 죄든 죄로 인해 구원을 잃는다면 구원을 유지할 사람이 없다.

3. 예수님의 단번 속죄: 모든 죄 영원히 속죄

4. 구원은 출생이다. 출생이 여러 번 있을 수 없다.

5. 구원은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롬 8:14-17; 31-39).

6.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다(벧후2:4).

7.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어 있다(엡5:30; 고전12:18).

8. 구원을 잃는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요일5:10).

히브리서 강해 제3과

히브리서 6장

- 1-3절, 초보 원리들을 버려두고 완전함으로 나가자. 구원받았으니 이제 성화의 길을 걷자. 태어났으니 이제 성장하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3절). 할 수 있다!!!
- 4-6절: 주변의 여러 환경으로 인해 복지부동인 이들을 일깨우기 위해 사도는 가정법을 사용한다. 구원받은 자들이 떨어져 나가면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다. 가정법은 화자(話者)의 간절한 의도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통해 극적으로 표현되는 서법이다.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회개에 이르게 함이 정말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것은 역으로 구원은 절대로 잃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말이다.
- 7-8절: 땅 이야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은 저주함에 가까이 있어 마지막에는 불살라진다. 그렇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은 불살라진다. 그래도 땅은 여전히 남아 있고 그 위의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나 채소만 타게 된다. 마찬가지로 보상의 심판 때 구원도 그대로 남아 있다. 다만 행위만 불탈 뿐이다(고전3:11-15).
- 9-10절: 그러나 너희에게는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된 것들이 있음을 나는 확신한다. 즉 그들에게는 구원은 당연히 있고 구원에 동반된 것들 즉 더 좋은 것들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구원의 열매이다(엡2:8-10).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아니하신다. 보상해 주신다.
- 11-12절: 끝까지 소망의 확신에 이르기를 내가 바란다. 무슨 소망인가? 앞뒤 문맥 상 보상을 받는 소망이다. 결코 구원의 소망이 아니다. 그들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사도는 원한다. 결코 구원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다.

1-12절 요약

1. 신구약성경에서 구원받은 자들에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 성도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거나 혹은 믿음의 담보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일단 권면과 징계를 하신다. 그런데 심각한 죄에 대해 징계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죽이신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의 심판을 받는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다. 심각한 죄를 지었다고 지옥으로 보내시면 얼마나 두려울까?

13-20절: 아브라함의 예

다시 한번 말하지만 12절은 믿는 자들이 보상의 소망의 확신에 이르도록 부지런해야 함을 말한다. 구원이 아니라 보상의 소망이다. 성도들은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사도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우리에게 확증해 준다.

13-14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복을 주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해 주실 것을 맹세로 약속하셨다(창22:16-17). 이것은 무슨 약속인가? 구원인가? 아니면 구원 이후의 상속에 대한 약속인가? 아브라함의 구원은 이미 창15:6에서 끝났다. 창22:16-17은 그의 씨가 번성하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이다. 즉, 보상에 대한 것이다. 이 상속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과 언약을 체결하셨다.

15절: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견딘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대로 자손들이 번성하는 복을 받았다. 끈질기게 인내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다. 75세에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자손들의 복을 약속받고(창12:1-3) 그 뒤 어느 시점에 믿음으로 구원받음(창15:6). 자손들의 약속 이후에 그는 24년을 약속의 자식 없이 떠돌아다님(10년+14년). 인간적 피와 실수로 이스마엘을 낳음(창16장).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심. 그리고는 100세에 이삭을 아들로 받음(창21:1-5). 실제로 그는 자손이 하늘의 별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많음을 보지 못하였지만 멀리서 그리스도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다(요8:56). 즉 그는 육체적 후손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한 영적 후손들까지 다 보았다. 이러한 데에는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였다. 심지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데까지 감(창22:1-14). 그 이후에 그에게 자손의 복이 약속되고 실현됨(창 22:15-18).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참고 견딤으로 약속하신 것을 결국 받았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낫지 않은가?

16절: 사람은 항상 자기보다 나은 자를 두고 맹세한다. 반대는 없다. 확증의 맹세는 모든 다툼을 없앤다.

17절: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약속의 상속자들(히11:17)에게도 이런 맹세를 하셨다. 약속의 상속자들: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 2차적으로는 구원의 상속자들,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다.

18절: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 구약의 도피 도시, 요르단 강 양쪽에 세 개씩 둠(민35:9-34, 14절과 28절 중요; 수20).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 도시에 거할 수 있고 그 뒤에 자기 도시로 돌아감. 우리 성도들은 다 예수님께로 도피하였다. 그런데 그분은 결코 죽지 않는다(히7:23-25).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 우리 앞에 놓인 소망: 이것은 일차적으로 보상의 소망이다(구원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 이 둘이 있으므로 우리는 확고하게 안위를 얻는다.

19-20절: 이 보상의 소망은 혼의 닷과 같다(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확실하고 굳건하다. 혼의 닷의 특징과 목적: 하늘을 향한다.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휘장 안으로 달려가신 분이시다(첫 열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 들어갈 수 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기만 홀로 들어갈 수 있다. 다른 이들은 못 들어간다. 히브리서 전체 요약: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휘장 안에 계시므로(히6:19) 우리는 그분의 은혜의 왕좌에다가 가서 필요한 때에 도움을 얻는다(히4:15-15). 또 동시에 예수님은 진영 밖에서 수치를 짊어지셨으므로(히13:13) 우리도 그분의 수치를 짊어져야 한다. “우리가 휘장 안에 살면 진영 밖으로 나가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6장 요약

1. 성도는 반드시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2. 하나님은 이것이 가능하게 하셨다.
3. 그렇지 않고 믿음의 담보 상태에 머무르거나 심각한 죄를 지으면 징계와 심지어 사망이 임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상의 손실을 당한다.
4. 그러나 이 히브리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았고 믿음의 행위와 수고의 열매가 있다.
5.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견디면 보상의 보답을 반드시 받는다.
6. 이 보상의 소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과 맹세로 확증해 주셨다.
7.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아서 확실하며 굳건하다.
8. 예수님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셔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사역을 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9. 보상을 받지 못하는 성도들의 흔들리는 과정
 - a. 말씀에서 떠나기 시작한다(히2:1-4).
 - b.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한다(히3:7-4:13).
 - c. 그리고는 곧바로 말씀에 둔하여 게으른 자가 된다(히5:11-6:20).
10. 이것을 극복하려면 혼의 닷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성경 문제

1. 위에서 우리는 히브리서 6장과 10장이 구원 취소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의 손실과 징계를 가르침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6장에서 개역성경은 구원 취소 교리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그럴듯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2. 먼저 4-6절은 위에서 살펴본 대로 if를 사용한 가정법 문장이다. 그러나 개역성경은 가정법의 ‘if’(만일 ...하면)를 없애고 6절에서 아예 다음과 같이 기술해 놓았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개역 히6:6). 즉, 개역성경은 ‘if’를 없앴으로써 아예 히브리 성도들을 타락한 자들로 만들어 놓았다. 심지어 배교의 결정판이라고 하는 NIV도 6절에서 ‘if’는 그대로 살려놓았다. NKJV, Amplified Bible 등도 다 6절에 ‘if’를 제대로 달아놓았다. 개역성경이 이런 오류를 범한 것은 ASV(NASB의 모체)를 대본으로 사용하여 번역되었기 때문이다. ASV와 NASB는 개역성경처럼 ‘if’가 없고 ‘타락한 자들의 경우에는’으로 되어 있다.

3. 그 뒤 개역성경은 9절에 치명적인 오류를 만들어 놓았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개역 히6:9). 일단 9절 처음에 ‘그러나’가 나오면서 문장이 역전됨을 보여야 하는데 개역성경은 ‘그러나’를 없앴다. 참고로 NKJV, ASV, NASB, Amplified Bible 등도 다 ‘그러나’로 시작한다. 그리고 개역성경은 ‘though’를 단순히 뒤에 ‘말하나’로 번역하여 뜻을 약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그 다음에 있다. 개역성경은 “우리는 너희가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로 번역하였다. 그들이 구원에 가깝다면 그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그러면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도 받지 못한 자들의 행위와 수고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단 말인가? 이것은 실로 말이 안 되는 번역이다. NKJV, ASV, NASB, NIV 역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처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바르게 번역하였다. 다만 카톨릭 성경인 Amplified Bible만 ‘구원에 가까운’이라는 절을 삽입하여 놓았다. 즉, 이런 번역은 구원을 평생 과정으로 이해하는 로마 카톨릭 주의의 산물이다.
4. 이것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예가 바로 벧전2:2이다.

흠정역: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개역(ASV, NASB, Amplified Bible 등):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5. 개역성경을 비롯한 대부분의 현대 역본들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고 말하면서 구원이 평생 과정임을 보여 준다. 이런 성경으로는 구원을 받았다가도 언제라도 잃을 수 있다는 구원 취소 교리가 얼마든지 가능하며 무지한 성도들은 이런 성경과 그 안의 가르침으로 인해 평생토록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 살게 된다. 이렇게 두려움의 불씨를 품고 사는 자들에게 개역성경의 빌립보서 2장 12절은 기름을 부으면서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개역: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6. 성경이 두렵고 떨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꼼짝없이 교회와 교단과 목사의 말에 순종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개역성경을 사용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이다. 그러나 바른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흠정역: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7.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미 얻은 구원을 가지고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밖으로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요점이다. 여기서 영어는 ‘work out your own salvation’이라고 말한다. 요즘 우리는 ‘워크아웃’(work out) 기업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다. 잘 나가던 회사의 재무 상태가 나빠지면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회사가 일하는 것을 감독하고 채찍질하는 것을 워크아웃이라고 한다. 즉, 기업의 경우든 성도의 경우든 워크아웃은 기업이나 구원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여 외부로 무언가를 드러내어 보여 주는 것을 뜻한다.
8. 이런 구절들을 통해 우리는 성경 번역이 믿음 생활에 대단히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가 성경 때문에 잘못되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애꿎은 성도들이 당해야 한다. 사실 구원 취소 같은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이들도 잘못된 성경의 희생자라고 볼 수 있다.

히브리서 강해 제14과

히브리서 7장

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사역 설명,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 그런데 히브리 성도들이 자기 말을 도무지 이해할 것 같지 않아 6장에서 이제 초보 원리를 완전함으로 나가자고 권면함. 그렇지 않고 주저앉으면(히12:12-13) 보상의 손실을 입고 징계를 받으며 심한 경우 죽는다. 아브라함 역시 끈질기게 구원이 아니라 상속의 보상을 기다리다 결국 받았다(6:13-15). 그리고는 7장에서 다시 멜기세덱 주제로 돌아온다.

히브리서 7장 요약: 사도는 다시 멜기세덱과 그리스도로 돌아온다.

I. 사도는 멜기세덱이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뛰어난을 보인다(7:1-10).

II. 레위의 제사장 체계로는 완전함에 이를 수 없음을 보여 준다. 그래서 다른 제사장 체계가 있어야 한다. 체계가 변하면 율법도 변해야 한다(7:11-12). 율법은 이제 폐하여졌다(7:18-19).

III. 신약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엄숙한 맹세에 의해 세워졌다(7:20-22).

IV. 구약에는 많은 제사장이 있었으나 그리스도는 한 제사장이다(7:23-28).

V. 구약의 제사장은 죄가 있었으나 신약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이다(7:26-28).

1-3절: 멜기세덱 요약

1. 창세기 14장, 롯이 포로가 되어 끌려감. 아브라함이 단까지 쫓아가서 그를 구해 옴.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이 등장함(창14:17-20). 살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18), 살렘은 예루살렘을 뜻한다. 다윗이 여부스 족속에게서 탈취함(삼하5:6-9), 그 이후로 많은 전쟁이 거기에 있음. 결국 주님의 지상 강림에 의해 평화의 도시가 됨(슌14:1-3; 시76:2-3; 학2:9; 시122:6).
2. 메시아 통치 시편(시110), 제사장(4절), 1절(마22:43; 막12:36; 눅20:42; 행2:33-35), 다윗은 자기의 씨에 대해 대언함(행2:30). 그런데 그 씨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유다 지파), 더더욱 영원토록 제사장은 될 수 없다. 어떤 유다 왕도 온 땅의 통치자들을 쳐부순 적이 없다(시2). 1절은 적어도 신약에 25회, 4절은 5회 언급됨. 이 중에서 10번이 히브리서에 나옴. 예수님은 1절을 사용하여 자신의 신성을 증명함(마22:41-46). 1-3절은 왕, 4절은 제사장, 5-7절은 천년왕국 전에 이교도 왕들을 물리치는 정복자. 가장 중요한 구절은 4절: 메시아는 제사장이다. 구약의 성도들은 대개 이 점을 놓쳤다.

1절: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함, 구약에서는 원래 왕과 제사장 직무가 분리됨.

2절: 성경에서 이름은 매우 중요함. 야곱에서 이스라엘(창32:24-32), 시몬에서 게바(요1:35-42)

1. 살렘은 화평(peace)을 뜻하므로 멜기세덱은 의의 왕, 화평의 왕, 성경에서 의와 화평은 종종 함께 나온다(사32:17; 시85:10; 72:7; 약3:17-18).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히12:10-11). 참 평안은 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롬5:1).
2. 아브라함이 십분의 일을 바침. 그 이유(히7:4-10). 모세의 율법 이전에 이미 십일조 풍습이 있었다(아브라함과 야곱).
3. 십일조 이야기: 땅의 모든 십일조는 주님의 것이었다(레27:30-32): 땅의 씨, 나무 열매. 또한 소 떼나 양 떼의 십일조. 이스라엘은 십일조를 성막과 성전에 거하던 레위 사람들에게 가져갔다(민18:2; 신12:5).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년 10%가 아니라 23.3%의 십일조를 바쳤다: (1) 레27:30-32, (2) 신14:22-27(12:17-19 참조), (3) 신14:28-29. 십일조 외에도 헌물을 바쳤다(말3:8).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의 국민으로서 적어도 연 30% 이상 십일조와 헌물을 바쳤다. 우리는 신약(십자가 사건 이후)에서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의 십일조를 드리지 않는다고 믿으며(마23:23; 고후9:6-7) 구약의 십분의 일을 기준 삼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다고 믿는다.

히브리서 강해 제5과

히브리서 7장

3절: 멜기세덱은 사람이었다(4). 그는 천사나 스랍이나 그룹이 아니었다. 부모가 있어야 하나 그의 계보는 전혀 없다. 구약의 위대한 인물은 다 계보나 배경이 있다. 더욱이 제사장은 반드시 자신의 계보 혹은 출신을 밝혀야 한다(스2:61-62; 느7:63-65). 그는 실제 사람으로 실제 왕국의 왕 겸 제사장이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아무 기록이 없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는 항상 제사장이다. 그러나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그와 완전히 다르다. 또한 그들은 왕 겸 제사장이 아니다. 오직 멜기세덱과 예수님만 왕 겸 제사장이다.

4-10절: 멜기세덱의 위대함

1. 아브라함에게 십분의 일을 받음(4)
2. 레위의 제사장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들은 다른 후손들에게서 십일조를 받지만 멜기세덱은 직접 아브라함에게서 받음(5-6).
3.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축복함(6-7).
4. 십일조를 받은 레위의 자손들은 다 죽는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죽음을 모른다(8).
5. 사실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쳤다. 그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우리는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죄를 지을 때 그의 허리에 있었다(9-10).

10-19절: 다른 제사장의 필요성

1. 레위의 제사장 체계는 완전함을 주지 못한다. 즉, 율법은 완전함을 주지 못한다(19).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희생물을 바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을 얻지 못하였다(10:1-4). 율법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추가된 것이다(갈3:19, 23-24; 4:4-5).
2.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나셨다(13-15). 멜기세덱을 보니 분명함.
3.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셨으므로 모세의 율법도 변해야 한다(12).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성취되었고 그것의 규례들은 길에서 치워졌다(골2:12-17). 그래서 신약 성도는 율법에서 벗어났고(갈5:1-6) 율법에 대해 죽었다(롬7:1-4). 그렇다고 무법자가 되면 곤란하다. 율법에서의 자유는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한다(롬8:1-4).
4.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파위에 따라 즉 하나님의 선포에 따라 되셨다(16-17). 그 결과 그분은 폐하여지지 않는다.
5. 이 모든 변화는 율법의 연약함과 무익함 때문이다(18-19). 이것은 율법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함을 뜻한다. 율법은 하지 못하였으나 그리스도는 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분과 그분이 가져오시는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다. 율법은 단지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끈다(갈3:24).

율법은 1. 도덕법: 출20:1-17(십계명), 2. 시민법: 출21:1-24:18, 3. 의식법: 출25:1-40:38
우리가 지금 말하는 율법은 도덕법인 십계명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의식법(제사장, 헌물, 절기)과 시민법(나병, 과부)을 뜻한다. 십계명은 모세의 의식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시내 산에서 주어졌고 지금도 유효하다(안식일과 주일 차이 빼고). 그 이후로 600여 개의 율법 규례들을 만들었다.

1. 율법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롬2:14; 요1:17).
2. 율법의 목적은 사람을 의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죄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롬3:20).
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훈육 선생(갈3:24)
4. 더러움을 보여 주는 거울
5. 예수님은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롬10:4; 갈2:19).
6. 은혜와 율법은 체계 자체가 다르다.

a. 율법 하에서는 양이 목자를 위해 죽었다. 그러나 은혜 하에서는 목자가 양을 위해

죽었다(요10:14-15).

- b. 율법은 거룩함을 요구한다. 그러나 은혜는 거룩함을 준다.
- c. 율법은 말한다 -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바,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갈3:10).
- d. 은혜는 말한다 -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롬4:7-8).
- e. 율법은 말한다 -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마22:37).
- f. 은혜는 말한다 -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요일4:10).
- g. 율법은 말한다 -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제사장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히10:1).
- h. 은혜는 말한다 -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히 10:12-14).
- i. 율법은 선언한다 -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롬2:12)
- j. 은혜는 선언한다 -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롬8:1).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요5:24).

20-28절: 다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

- 1. 그분은 맹세를 통해 제사장이 되셨다(20-22).
- 2. 그분은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시다. 여기의 보증(surety)은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보증인을 뜻한다. 대출 받을 때의 보증인과 같은 개념. 신약은 구약보다 좋다. (1) 내용이 단순하고 쉽다. (2) 복잡한 규례들이 거의 없다. (3)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4) 이것은 레위 제사장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집행되므로 확실하다. 언약(covenant)와 달리 상속 언약(testament)은 반드시 죽음을 필요로 한다(히9:16).
- 3. 그분은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을 소유하신다(23-24).
- 4.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증보하시고(롬8:34) 자기를 통해(요14:6)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신다(25).
- 5. 그런데 그분은 우리 신약성도들에게 꼭 맞는 분이시다(26). 도덕적으로 인품 측면에서 그분은 무엇보다도 거룩하시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벧전1:14-16; 레 11:44-45; 벧후3:11, 14).
- 6. 그분은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지 않고 한 번에 끝내셨다(27).
- 7. 그분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거룩히 구분된 하나님의 아들이다(28).

히브리서 강해 제16과

히브리서 8장

8, 9, 10장은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성소, 더 나은 희생 예물로 섬기는 더 나은 대제사장 예수님을 묘사한다. 구약의 모든 것이 가리키는 분이 곧 예수님이다. 실체가 오면서 예표를 다 이루었다.

히브리서 8장 요약: 제사장 체계가 바뀌었으므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의 본질도 바뀐다.

- (1) 구약의 제사장 체계는 예표요, 잠정적인 것이다(8:1-3).
- (2) 신약의 그리스도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신다(8:4-5).
- (3) 그리스도는 더 나은 새 언약의 중재자이시다(8:6-13).
 - (a) 새 언약은 더 나은 약속들에 근거한다(8:6).
 - (b) 새 언약은 마음속에 기록된다(8:7-10).
 - (c) 새 언약은 모든 사람이 안다(8:11).
 - (d) 구약은 사라진다(8:12-13).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 주려는 요점: 구약은 신약의 도래로 마땅히 사라져야 한다(13절).

1-2절: 히4:14-28 요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제사장이 있다.

1. 그분은 도덕적으로 합당하시다(히7:21-28)(멜기세덱의 계열, 맹세, 항상 계신다. 거룩하시다. 한 번에 끝내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시다).
2. 그분은 일을 끝내시고 앉아 계신다: 구약의 성소에는 의자가 없었다.
3. 왕좌에 앉아 계신다(히1:3; 10:12; 12:2), 시110:1의 성취
4. 그분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다.
5.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신다(9:24). 즉 오리지널을 섬기신다.

3-5절: 구약 시대 제사장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제사장이므로 성소에서 섬겨야 한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 논리적으로(3절):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예물과 희생물을 드려야 한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데서(신 12:13-14). 그곳이 곧 성소이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성소 안에서 드려야 한다. 하늘의 성소
 - a. 그런데 구약시대 제사장들과 달리 그분은 매일 새로운 희생물을 드리지는 않는다(히 9:22-28). 그분의 단번 속죄 희생예물은 그분의 피이다(히9:11-14; 12:24). 그분은 지금 하늘에서 살아 있는 희생물로 계신다.
2. 계보 측면에서(4절): 땅에서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할 수 있다.
3. 예표 측면에서(5절): 구약 시대의 많은 것들이 신약 시대의 예표이다(100%가 아니다).
 - a. 유월절 어린양
 - b. 땅의 성막이나 성전은 하늘의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출25:9, 40; 26:30).
 - c. 하늘의 성막이 진짜, 거기에 참 대제사장이 계신다(골2:17; 히10:1).
 - d. 구약의 것들은 카피에 지나지 않는데 오리지널을 버려두고 카피로 돌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마치 실제 건물을 버려 주고 건물 설계도에서 살려진 것과 비슷하다.

6절: 그분은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시다.

1. 성경에는 여러 개의 언약이 있다. 히브리서는 그중 2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옛 언약, 새 언약
2. 옛 언약(구약): 율법의 언약, 조건적이고 잠정적이다. 히브리 자손들의 순종,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생명 약속(출19:1-8). 하나님의 의를 담은 명령들(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이런 율법(명령들 포함)은 대개 사망의 직무, 정죄의 직무(고후3:7-9): 죄를 보여 주지만 구원은 주지 못함, 정한 때가 될 때까지 제사장과 희생 예물 시스템으로 유지가 됨(히9:10)

3. 새 언약은 더 나은 약속들에 기반한다(6). 구약시대의 약속들은 대개 이 땅에서의 육체적 물리적 약속들이었다(장수, 풍요, 자손, 전쟁 승리 등). 그러나 새 언약은 초점이 하늘들에 있는 영적인 것들에 주어졌다(엡1:3).
4. 모세는 구약시대 율법을 받을 때 중재자였다(갈3:19-20). 백성은 시내 산에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모세가 들고 와서 이야기 해 주기를 바람(출20:18-21).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런 두려움은 곧 사라지게 되었다. “우리가 듣고 지키겠다”를 하지 못함(출20:19).
5. 새 언약의 중재자는 그리스도(딤후2:5). 이 새 언약은 더 나은 약속들에 근거하여 더 좋다(요5:24: 8:51; 롬10:9-10, 고전15:40-58).

7절: 첫 언약은 흠이 있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하지만 구원을 주지는 못하였다. 이런 면에서 흠

8절: 그 결과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서 흠이 발견되었다.

9-13절: 더 나은 언약은 렘31:31-34에 근거함, 바빌론 침공, 유다의 마지막 때,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최종적으로 유다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 주심.

렘30장 3, 6-9절 설명

렘31장: 1, 17, 27-28, 31-34, 35-37

내용: 1.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맺는 언약(8절), 2. 모세와 맺은 것이 아니다(9절), 3. 내가 내 법들을 그들(유대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두고 기록한다(10절), 4. 복음 선포가 필요 없다(11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롬11:25-27), 대언하면 죽는다(슌13:3). 주를 아는 지식(사 11:9; 합2:14), 5. 긍휼을 베푼다(12절): 죄들이 사면된다(겔36:24-28).

렘31과 히8:8-12의 새 언약은 원래 유대인들에게 문자적으로 적용되는 구절이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 말씀들을 교회(히브리 성도들)에 적용할까?

히브리서 강해 제7과

히브리서 8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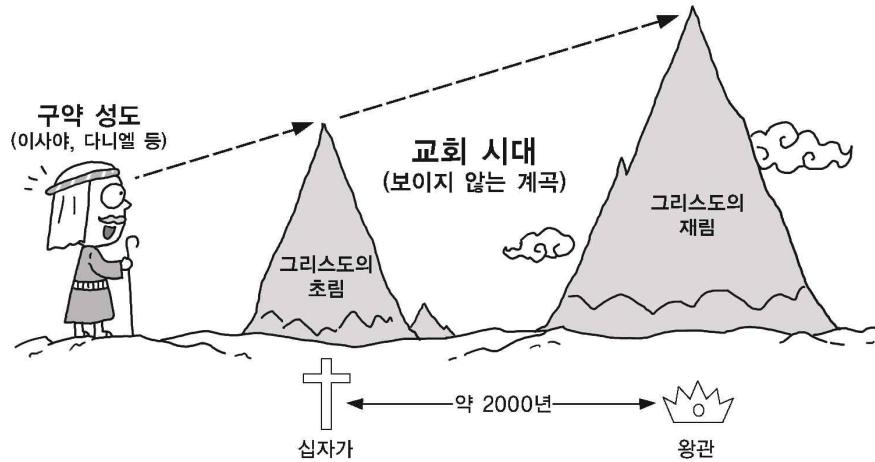
렘31과 히8:8-12의 새 언약은 원래 유대인들에게 문자적으로 적용되는 구절이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 말씀들을 교회(히브리 성도들)에 적용할까? 우선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 서신이 주어짐 주의 만찬, 유월절에서 변화됨(마26:26-28; 막14:22-24; 눅22:20).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하며 교회에 적용함(고전11:23-27). 또한 사도는 히브리서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새 상속 언약의 증재자라고 함(히9:15; 12:24)

원래 새 언약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인데 왜 교회가 이것의 복을 누리는가?

어떤 이들의 주장: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약속들은 아브라함의 영적 씨에게 해당된다.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이다. 지금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이지만(갈3:13-29) 영적 이스라엘은 아니다. 히8:8, 이스라엘의 집, 유다의 집

어떤 이들의 주장: 예레미야의 새 언약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환난기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 No!!! 그러면 히9:15; 12:24를 어떻게 푸는가?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유대인들은 초림을 이해하지 못하였다(눅24의 엠마오 마을의 두 제자)

마10:5-7; 15:24; 23:37-39(메시아 거부); 28:18-20

렘31과 히8:8-12의 새 언약은 원래 유대인들에게 문자적으로 적용되는 구절이다. 맞다. 그러면 새 언약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 면에서 효력을 미친다(롬15:8-9절).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구원 측면에서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상속) 언약의 효력을 맛보고 있다.

또한 예수님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제공하시려고 하였다. 이 새 언약의 핵심은 바로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분은 먼저 자신의 백성에게로만 가셨다(마15:24; 10:5-6). 그러나 유대인들의 거부(마23), 복음의 초기에도 예루살렘에서 먼저 베드로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였다. 그러나 스테반 사건 등을 통해 유대인들은 완전히 기회를 잃게 되었다.

그러므로 현재 십자가의 피를 통해 주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복은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가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 전체로 그 복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롬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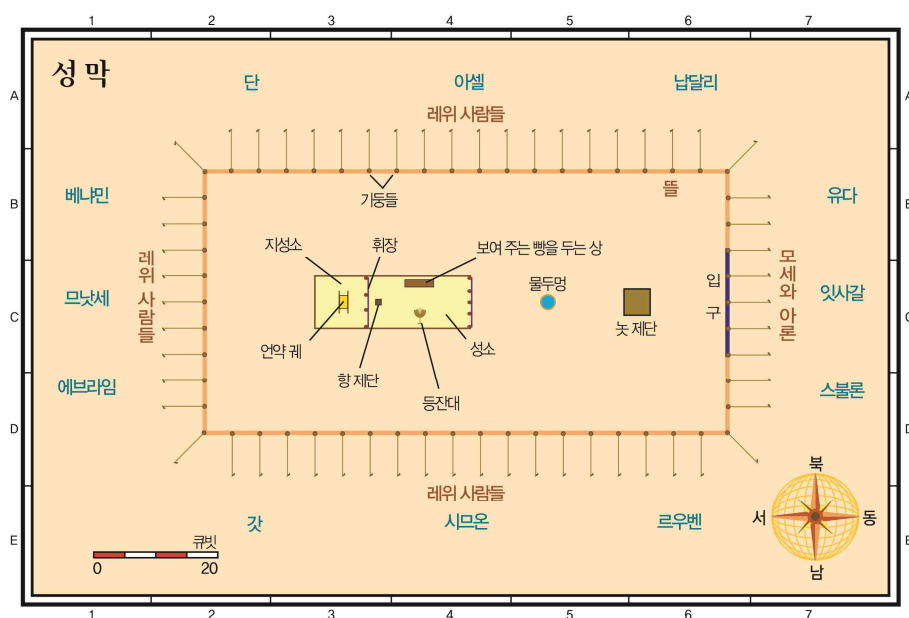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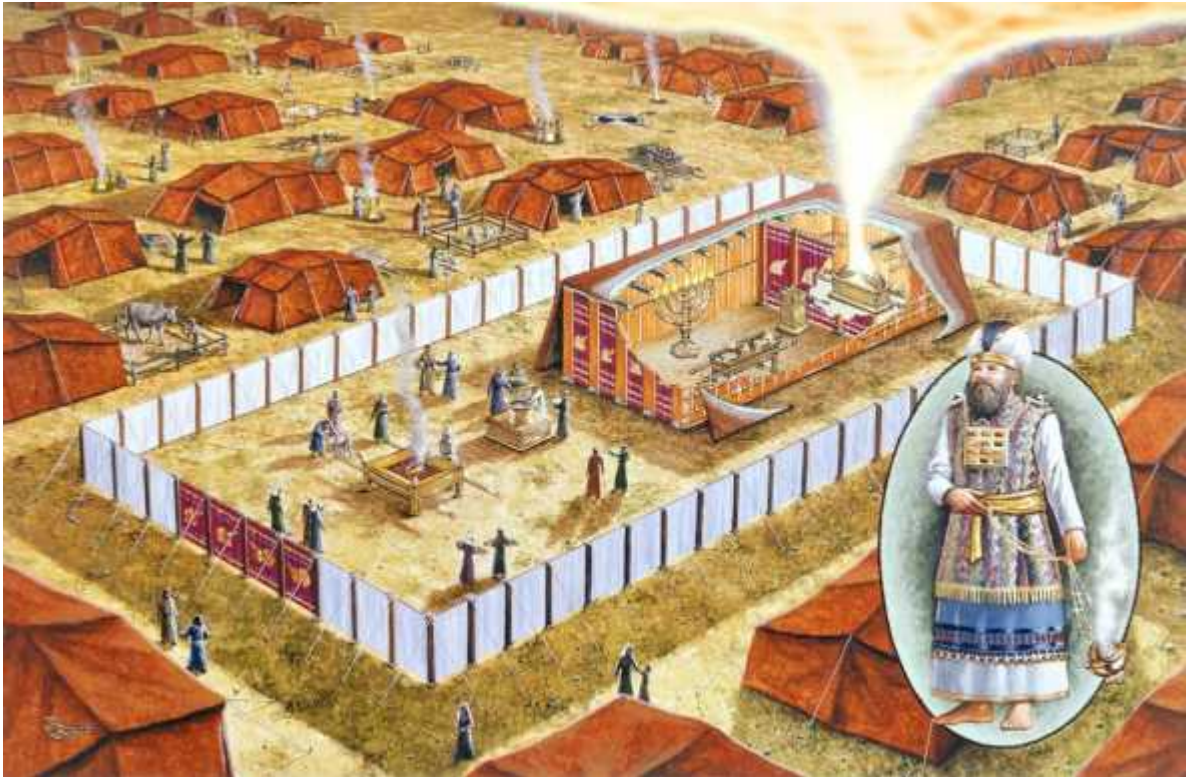
사도 바울이 새 언약을 언급한 이유는 13절에서 “새”를 인용하고자 함이었다(‘옛’과의 대조를 위해). 유대인 성도들에게 구약이 폐기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그들이 아는 새 언약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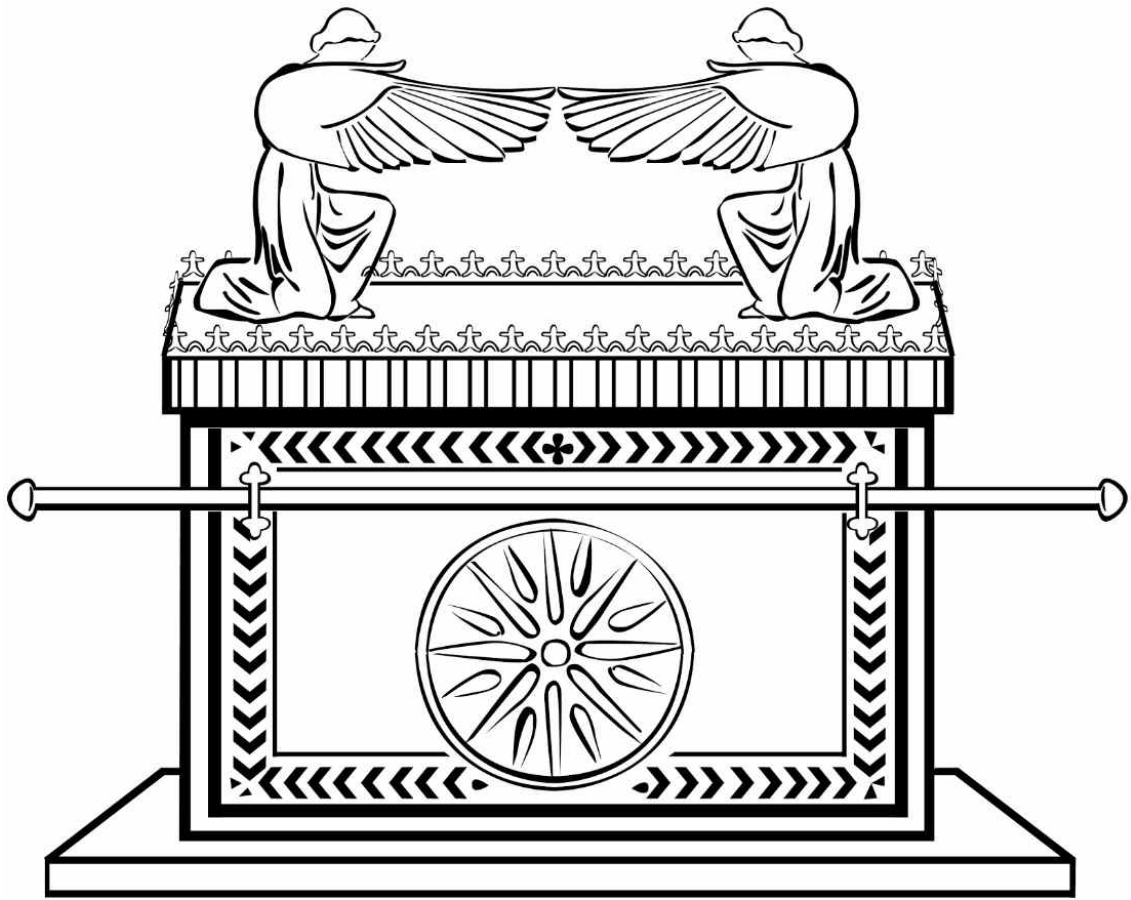
히브리서 9장

그리스도인은 땅의 백성이요 또 하늘의 백성이다(마22:21).

보는 것이 주도하는 세상에서 보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야 한다(고후5:7).

하늘의 성소 역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성경대로 믿어야 한다. 현재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전에서 경배를 받지 않는다(행7:46-50). 지금 이 시간 땅에는 그분의 특별한 성소가 없다(사66:1-2; 요4:19-24). 교회는 예배당 혹은 강당이지 성전이 아니다. 예배 용으로 쓰지만 그분이 거하는 장소는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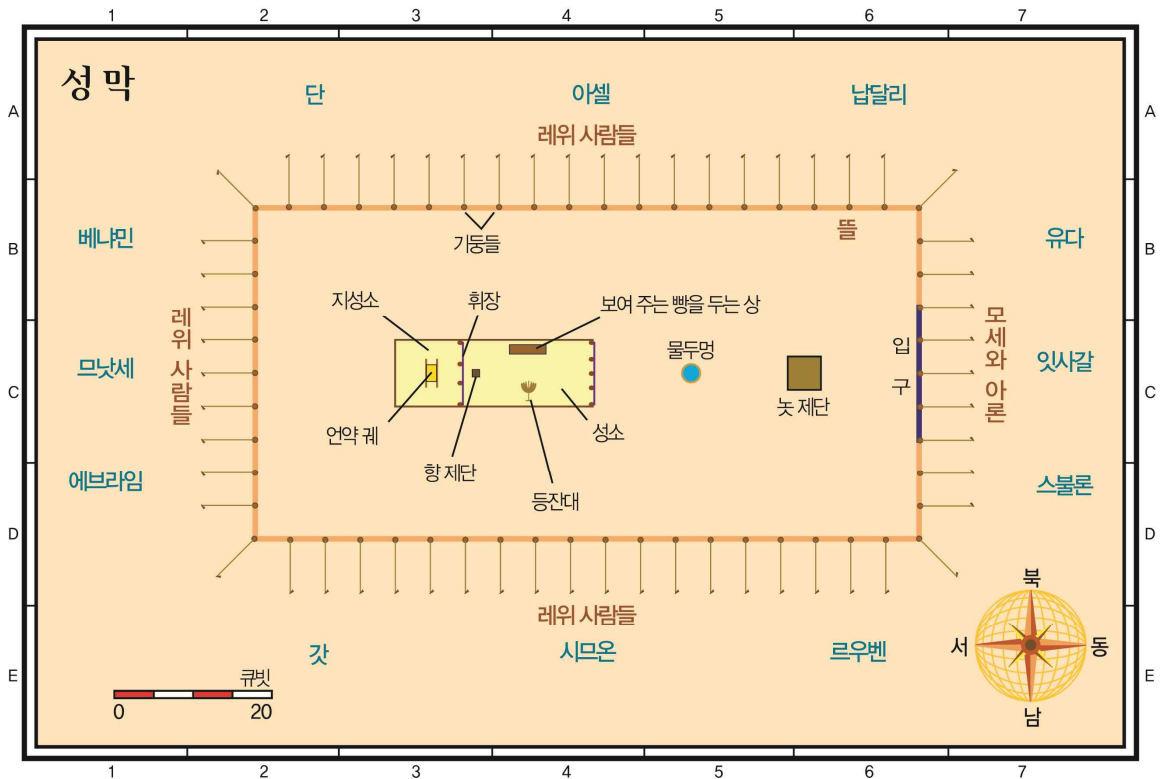


히브리서 강해 제1과

히브리서 9장

9장 역시 7, 8장과 비슷한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제시한다. 특히 여기서는 구약의 희생예물에 비해 그리스도의 희생이 월등함을 보여 주며 특히 구약은 예표요, 그림자이고 신약이 실체임을 보여 준다.

- (1) 구약의 성막과 집기들(9:1-5).
- (2) 성막에서 대제사장의 섬김, 1년에 1회(9:6-7)
- (3) 이것은 아직 하늘의 지성소에 이르는 길이 드러나지 않음을 보여준다(9:8-10).
- (4) 그리스도는 그림자의 실체요, 자기 피를 드려 하늘의 지성소에 이른 분이다(9:11-14).
- (5) 그분의 피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죄를 제거한다(9:15).
- (6) 새 언약의 상속자는 피를 흘리고 그 피로 대상들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9:16-23).
- (7) 그리스도의 희생은 단 한 번의 희생이다. 매번 죽을 필요가 없다(9:24-26).
- (8)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필요성(9:27-28).



구약시대 성막

1.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인에게 계시하는 곳이다(출29:45-46).
2. 하나님께서 죄인과 함께 거하시는 곳이다(출25:8).
3.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 주시는 곳이다(출25:22).
4.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말씀하시는 곳이다(레1:1; 출29:42).
5. 하나님께서 죄인을 받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곳이다(레1:4; 4:20).
6. 하나님께서 죄인으로부터 제물을 받아주시는 곳이다(출28:38).
7. 한 마디로 성막은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만나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은총의 장소로서 하나님이 직접 예비하신 특별한 장소이다. 즉 예배의 장소이다.
8. 성막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형이며 형상이다.

히9장은 구약의 땅의 성소와 신약의 하늘의 성소를 대비해서 보여 준다.

1-10절: 구약의 땅의 성소의 열등한 점

구약의 성소와 규례들과 제사장 등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므로 적절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열등하다.

1. 땅에 있는 성소이다(1절).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막(히9:11), 사람의 손으로 친 성막(8:2)
 - a.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하여 넘치도록 풍성하게 헌물을 가져옴(출35:20-29).
 - b. 하나님께서 브살레엘과 아홀리압에게 지혜와 재능을 주심(출35:30-36:4).
 - c. 결국 이들이 만들어서 광야에 세웠고(출40:17)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름(출40:34).
 - d. 그럼에도 이것은 땅의 것이라 수리해야 했고 한 지역에만 있어야 했으며 한 장소에만 처야 했고 해체해서 메고 다녀야 했다. 온 세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만 속하였다.
2. 이것은 더 위대한 성소의 모형이었다(2-5절). 성소, 지성소(금향로, 언약 궤), 궤 안의 금 향아리, 막대기, 돌 판들, 이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히9:23)
 - a. 2절의 첫째 것(the first)과 7절의 둘째 것(the second)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킴.
 - b. 성소의 등잔대(출25:31-40; 27:20-21; 37:17-24)
 - c. 보여주는 빵을 놓는 상(출25:23-30; 37:10-16),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이 헌 빵을 치우고 새 빵을 놓음: 12개, 6개씩 두 줄로 진열함(레24:5-9).
 - d. 금 제단(출30:1-10; 37:25-29),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제사장이 향을 태움,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 제단의 솟을 사용해서 휘장 안에서 공홀의 자리 앞에서 향을 태움
 - e. 금 향로(레16:11-13)
 - e. 원래 지성소에는 오직 언약 궤만 있음. 언약 궤 위에 금으로 된 공홀의 자리가 있음, 두 그룹이 있음. 바로 여기가 성막에서 하나님의 왕좌임(출25:10-22; 시80:1; 99:1).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공홀의 자리에 피를 뿌려서 돌 판들을 가림.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라 피를 보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공홀의 자리이다, 화해 제물(요일2:2; 롬3:25).
 - f. 이 모든 것이 의미를 지니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것들은 실체가 아니라 예표여서 열등하였다.
3. 백성이 접근할 수 없었다(6-7). 백성은 절대로 성막 안에 들어 갈 수 없었다.
 - a. 제사장들이 매일 성소에 들어갔지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일 년에 한 차례(7월 10일, 욥키퍼) 들어갈 수 있었다(레16).
 - b. 이때에 그는 자기 죄와 백성의 죄로 인해 희생물을 드려야만 했다.
 - c. 그런데 하늘의 성소는 구원받은 모든 자가 들어갈 수 있다(히10:19-22).
4. 잠정적이다(8절). 첫째 성막 즉 성소가 서 있었다는 것은(9:6)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수표와 현금 차이)
 - a. 성소는 백성과 지성소 사이에 서 있었고 제사장들은 거기서 일하였다.
 - b. 그러므로 지성소에 이르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
 - c. 예수님이 죽을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면서(마27:50-51) 그 길이 열렸다.
 - d. 그래서 더 이상 땅의 성소와 지성소가 필요 없다. 하나님께 직통으로 나가게 되었다(히4:15-16).
 - e. 개혁의 때까지만(갈보리 십자가 희생)
5. 땅의 성소는 외적인 일만 하였다. 희생물과 피는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다. 의식적인 정결함은 주었지만 도덕적인 정결함은 주지 못하였다.

11-28절: 신약의 하늘의 성소의 뛰어난 점

1. 그것은 하늘에 있다(11). 바울은 히브리 성도들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원하였다. 땅의 것은 심지어 성전이라도 영원하지 못하다. 땅의 성막은 손으로 만들었다(출 35:30-35). 그러나 신약의 성막은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히9:24). 그래서 시간과 상관없이

영원하다. 다가올 좋은 일들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 왔다.

2. 이 성막은 죄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룬다(12-15).

- a. 짐승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희생(12): 여기에 대해서는 10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여기서는 기초만 놓는다. (1). 구약의 짐승은 자원하지 않았다. (2) 짐승의 피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직접 들어가셨다(요20:17). (3) 짐승의 희생은 반복되었다. (4) 짐승의 희생은 영원한 구속을 주지 않았다.
- b. 의식적인 세정과 양심의 세정(13-14): 구약의 의식들은 마음을 바꾸지 못하였다. 물론 예배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영적인 경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강조점은 어디까지나 외적인 세정이었다. 그래서 의식대로 하면 정결한 것으로 선포되었다. 이것은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양심은 깨끗하게 하지 못함. 그러나 새 언약은 성령님을 통해 사람의 내부를 정결하게 한다(히8:10). 양심의 세정은 내적인 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 c. 잠정적인 복과 영원한 복(15): 구약시대의 구속은 수표로 준 것이다(히9:15; 롬3:24-26).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 이제는 구속이 완성되어 우리는 영원한 상속 유업을 얻는다. 그분께서 땅에서 끝내신 일과 하늘에서 끊임없이 하시는 중보는 우리의 모든 것을 커버하기에 충분하다.

히브리서 강해 제19과

히브리서 9장

구약시대의 성소(1-10절)

1. 땅에 있는 성소이다(1절).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막, 망가지면 수리해야 했고 한 지역에만 있어야 했으며 한 장소에만 처야 했고 해체해서 메고 다녀야 했다. 온 세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만 속하였다.
2. 이것은 더 위대한 성소의 모형이었다(2-5절). 성소, 지성소(금향로, 언약 궤), 궤 안의 금 향아리, 막대기, 돌 판들, 이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히9:23)
3. 백성이 접근할 수 없었다(6-7). 백성은 절대로 성막 안에 들어 갈 수 없었다.
4. 잠정적이다(8절). 개혁의 때까지만(갈보리 십자가 희생)
5. 땅의 성소는 외적인 일만 하였다. 희생물과 피는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다.

하늘의 성소(11-28절)

1. 그것은 하늘에 있다(11). 바울은 히브리 성도들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원하였다. 땅의 것은 심지어 성전이라도 영원하지 못하다.
2. 이 성막은 죄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룬다(12-15).
 - a. 짐승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희생(12): 짐승의 희생은 반복되었다.
 - b. 의식적인 세정과 양심의 세정(13-14): 구약의 의식들은 양심과 마음을 바꾸지 못하였다.
 - c. 잠정적인 복과 영원한 복(15): 구약시대의 구속은 수표로 준 것이다(히9:15; 롬3:24-26). 구약 시대 죄들의 사면(출34:7),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용서한다.

-
3. 하늘의 성소는 값비싼 희생물에 근거한다(16-23): 상속 언약(Testament)은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있어야 유효하다(눅22:20). 그래서 신약은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이다(16-17).
 - a. 심지어 구약도 피에 기초를 두고 있다(9:19-21) 제단, 율법 책, 백성(출24:3-8) 그리고 성막과 섬기는 데 쓰는 그릇들이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 다만 성소를 위해 속죄하여야 했다(레16:16, 19-20, 33; 대하29:21).
 - b. 구약(율법 시대)이 시작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로 사람과 물건을 깨끗하게 하였다(피, 물, 불 등 민31:21-24). 그런데 이런 세정은 사람이나 물건의 본질을 바꾸지 못하였다. 단지 하나님께 봉헌물을 받으실 수 있게 하였다.
 - c. 하나님의 법칙(22): 죄들의 사면을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한다(레17:11; 창3:21; 4:2-5).
 - d. 땅의 것들도 피로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신약에서는 짐승의 피보다 나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한다(23). 그리스도의 피는 예배자의 양심뿐만 아니라(9:14) 하늘의 것들을 깨끗하게 한다(9:23).
 - e. 자, 그러면 실제로 하늘의 것들이 더러워졌는가? 실제로 No! 땅의 성막이 죄로 더러워졌는가? 실제로 No! 피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뜻한다. 피 자체가 물건을 깨끗하게 하지는 못한다. 다만 피를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과 대화하실 수 있다.
 - f.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출12:21-23; 벧전 1:18-19).
 - h. 그리스도의 피(행20:28): 그리스도의 죽음은 결코 피가 아니다. 둘은 서로 다르다.
 - (1)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다(롬3:24-25; 마26:26-28; 골1:19-20; 출12:5-7).
 - (2) 십자가의 피로 의롭게 된다(롬5:8-9)
 - (3)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는다(계5:9; 롬3:23-24; 벧전1:18-19; 히9:22)

- (4)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다(골1:12-14)
 - (5) 십자가의 피로 가깝게 된다(엡2:13).
 - (6)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된다(계1:5; 요일1:7; 히9:22).
 - (7) 십자가의 피로 승리한다(계12:11).
4. 하늘의 성소는 모든 것의 성취를 뜻한다(24). 우리는 더 이상 인간 대제사장을 의지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오리지널 성소에 계신 분이시다.
- a. 손으로 만든 것들은 영구히 지속되지 않는다. 성막 없어짐, 솔로몬 성전 파괴됨, 스투바벨 성전 및 헤롯 성전 파괴됨
5. 하늘의 성소는 최종적이고 완벽하다(25-28):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무 수행은 완벽하다.

구 약	신 약
반복 희생	한 희생
짐승들의 피	예수님의 피
죄를 덮음	죄를 제거함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떠난 뒤	그리스도는 영구히 성소에 계심
성소 밖으로 나와서 백성을 축복함	자신의 백성을 하늘로 데려가려고 오실 것임

- a.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은 완벽한 일이고 최종적이고 영원한 일이다.
- b. 사람은 한 번 죽고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도 한 번 드러지셨다(26-28). 계13:8
- c. 27절 설명 : (1) 죽음은 약속의 결과이다(창3:19). (2) 이유는 죄이다(롬6:23). (3) 윤회 No! (4) 모두가 죽는다. (5) 한 번 죽으면 이생에서의 모든 아픔이 다 지나간다. (6) 그런데 곧바로 심판이 있다: 두 길(천국과 지옥)
- d. 28절의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다. (1) 세상(요3:16; 6:33,51), (2) 온 세상(요일2:2), (3) 모든 사람(딤후2:6), (4) 우리 모두(사53:6), (5) 모든 사람(롬5:18), (6) 모든 사람(히2:9), (7) 심지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벧후2:1)
- e. 그리스도인의 특징: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딤후2:11-13; 벧후3:12; 계22:20). 초림 시 고난 받는 메시아로, 재림 시 영광의 주로
- f. 재림의 목적은 죄 문제 해결이 아니다. 'without sin', '죄 없이', 초림 때에도 죄 없이 오셨다. 그러나 저주와 죄가 되셨다(고후5:21). 죄들을 제거하셨다(요1:29). 재림 때에는 No!
- g. 28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부활, 휴거, 빌3:20)
- h. 9:24-28까지 예수님은 세 번 나타나심(appear).
 - (1) 한 번 이 땅에 나타나셨음(26): 구원(과거의 구원)
 - (2) 지금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있음(24): 성화(현재의 구원)
 - (3) 앞으로 나타날 것임(28): 영화(미래의 구원)

이 편지를 받은 히브리 성도들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

바울은 이들에게 땅의 것과 하늘의 것, 잠정적인 것과 영원한 것, 미완성인 것과 완성인 것을 비교하라고 촉구한다.

올바르게 비교하면 타협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

아버지, 아들, 성령님, 성소, 피, 시민권, 재산이 모두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야 한다. 땅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하늘에 모든 것이 정착되어 있다.

히브리서 강해 제2과

히브리서 10장

사도는 10장에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희생 예물에 대해 자세히 다룬다.

I. 율법의 희생 예물의 불완전성(10:1-4).

II. 그리스도께서 더 나은 희생 예물을 예비하심(10:5-10). 하나님께서 몸을 준비하심.

III. 이 희생 예물은 단 한 번 영원히 드러졌다(10:11-18). 그 결과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되었다(렘 31:33-34).

IV. 그 결과 그 희생 예물은 또 다시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다(10:19-25).

V. 이런 희생을 받아들인 뒤 주님을 거역하면 몸이 멸망하는 심판이 있을 수 있다(10:26-31).

VI. 지금까지 히브리 성도들이 해 온 수고를 말하면서 인내로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요청한다(10:32-39).

사람의 죄 문제: 죄인이라 죄를 짓는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종교는 아무 소용없다. 대신 속죄의 필요성,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다(히9:22). 온 우주 공간에 죄를 제거할 존재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신 속죄로 죄들을 제거하신다(요1:29).

1-4절: 더 나은 희생물의 필요성,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예물을 드리고 복을 받았지만 헛되어 드린 자들도 많았다(사1:1-15)

1절: 구약의 희생예물의 열등함: 율법 자체가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희생물을 드리는 체계 자체가 그리스도의 예표, 그러므로 율법 시스템은 영원하지 못하고 잠정적이다. 그래서 반복해서 드렸고 매해 속죄일에 희생물을 드렸다.

2-3절: 짐승의 희생은 양심의 죄 문제를 완전히 다루지 못했다. 하나님이 용서는 하셨으나(레4:20, 26, 31, 35 등) 그것은 법적인 용서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였다. “죄들이 자꾸 생각나요!” 그래서 속죄일은 죄들의 사면을 주지 않고 죄들을 기억나게 하였다.

올해 속죄일에 또 제물을 드리면 지난해의 제물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함을 보여 준다.

4절: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한다. 그래서 더 나은 희생물이 필요하다.

5-10절: 더 나은 희생물의 제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히10:5-14는 카톨릭 사본에는 없다. 9:14절부터 10장 전체가 바티칸 사본에는 없다. 10-14절은 교황에게 치명타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와 제사장의 반복 헌물 때문에 찢어버림.

카톨릭 교회의 미사는 결코 죄를 제거하지 못한다.

천주교의 핵심은 제사장과 미사이다. 신약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사장이 남아 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계시록의 니골라당(계2:6)

이들은 예수님의 단번 속죄를 믿지 않는다: 화체설, 사제가 빵을 들어 축사하면 바로 그 순간 그 빵이 실제 예수님의 살이 되고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피가 된다. 그리고는 그것을 먹고 마신다. 요한복음 6장 53-56절을 인용한다. 60절, 63절 설명, 요한복음 기사는 주의 만찬이 아니다. 구약의 만나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이다. 그분의 실제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식인종이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고전11:23-26), 27과 29 설명

5절: 성육신(히1:6), 다윗의 시편(시40:6-8), 그의 예언(시22:16-21)

희생물과 헌물, 음식 헌물, 음료 헌물, 번제 헌물, 죄 헌물, 범법 헌물(레1-7)

바울은 하나님께서 번제 헌물과 죄 헌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한다(5, 6, 8절). 구약의 희생 제도가 무효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노아의 희생 예물을 기뻐하셨다(창8:21).

예배하는 자의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심을 뜻한다(사1:11-5; 암4:4-5; ; 잠15:8). 그런데 많은 경우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다(삼상15:22; 시51:16-17; 호6:6).

바울의 요점은 구약의 희생물이 최종 예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요3:16).

하나님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준비하셨다(요1:29). 그 어린양은 사람이다.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5절).” “내 귀를 여셨나이다(시40:6).”

신약 완성 이후에 기록된 ‘70인역’의 주인공은 히브리서를 보고는 구절을 맞추기 위해 시편을 뜯어고쳤다.

‘귀를 열다’의 의미: 구약에서 종이 주인을 사랑하면 주인이 송곳으로 귀를 뚫었다(출21:6).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종으로 오셨다. ???

예수님은 주인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종으로 오셨다(사50:4-5). 그런 차원에서 성령님은 ‘귀를 열다’를 순종하는 귀를 가진 몸을 예비하신 것으로 해석해 주심.

히브리서 강해 제1과

히브리서 10장

5절: 성육신(히1:6), 5-7절은 다윗의 시편(시40:6-8) 인용

바울은 하나님께서 번제 헌물과 죄 헌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한다(5, 6, 8절).

그러나 바울의 요점은 구약의 희생물이 최종 예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요3:16).

하나님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준비하셨다(요1:29). 그 어린양은 사람이다.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5절).” “내 귀를 여셨나이다(시40:6).”

‘귀를 열다’의 의미: 구약에서 히브리 종이 주인을 사랑하면 주인이 송곳으로 귀를 뚫었다(출21:6).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종으로 오셨다??? 열다의 open과 뚫다의 bore는 사실 다르다.

예수님은 주인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종으로 오셨다(사50:4-5). 그런 차원에서 성령님은 ‘귀를 열다’를 ‘순종하는 귀를 가진 몸을 예비하신 것’으로 해석해 주심. 바울은 그대로 기록하였음.

7절: 여기의 ‘나’는 메시아를 가리킨다. 다윗 왕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신17:18-20) 율법의 책들을 필사해서 읽어야 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이 기록되어 있다(창3:15의 여자의 씨, 창22:1-14의 희생예물, 창49:10의 실로 즉 왕, 출12의 어린양 등).

8절은 너무 명백하다.

9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그 뜻은 구약을 대체하는 것이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구약을 제거하고 신약을 세우셨다(롬10:1-4; 마5:17).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누구보다 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Testament, 상속 언약, 구약의 상속언약은 출19-21에 주어졌다. 그러므로 그 이전은 구약시대라 부르기 어렵지만 그냥 편의상 구약시대라고 부른다. 신약(New testament)시대도 사실은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이지만 그 전도 편의상 신약시대라고 부른다.

10절: 단번 속죄의 중요성 강조, 성도들은 예수님의 단번 속죄 희생으로 이미 완전히 거룩히 구별됨(요 5:24). 14절 참조

11-18절: 반복 희생은 불필요하다.

11-13절: 구약시대 성막에는 의자가 없었다. 제사장은 끊임없이 서서 같은 일을 반복해야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천해서 일을 끝내고 앉아 계신다(히1:3, 13; 8:1; 시110:1). 그리고 재림해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영원토록 완전하게 되었다(14절). 천주교회의 미사는 지금도 반복해서 제물을 드리는 불신행위이다. 이것은 결코 죄들을 제거 못한다. 또한 피 없는 제사는 죄들의 사면을 주지 못한다(히9:22).

14절: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완벽하다(골2:10).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들로 설 수 있다.

a. 그리스도의 희생은 한 번으로 충분하다.

b. 한 헌물이다.

c. 제사장은 죄를 제거하지 못한다.

d. 그리스도의 희생은 영원한 희생이다. “다 이루었다.”(It is finished, 요19:30).

e. 10-14절로 인해 천주교는 존재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f. 개신교의 어느 교회라도 이것을 부정하면 구원과 먼 시스템이다.

15-18절: 이것에 대한 증거는 성령님의 증언이다(15-18; 롬8:9, 16-17). 램31:33-34를 다시 인용함. 속중심이 변하는 것

구약 성도는 “나는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않아”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신약 성도는 가능하다. 죄들이 사면되었으므로 더 이상 죄로 인한 헌물이 필요 없다(18). No 제단, 제사장

19-25절: 그리스도의 초청

구약 성도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고 다만 대제사장만 일 년에 한 차례 들어갔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휘장이 찢어졌다(막15:38). 그래서 하늘의 지성소에 가는 길이 열렸다.

19절: 이 초청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 때문에 생겼다. 예수님의 완전하신 십자가 희생 때문에

구약의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 없이는 못 들어갔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들어간다.

19절의 이 길은 구약에서는 알지 못하던 새 길이다(히8:13). 또한 살아 있는 길이다: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서 증보하시므로(히7:25), 사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14:6).

2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몸이 찢기실 때 하나님은 그 휘장을 찢으셨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몸을 휘장으로 여기며 그것이 찢어짐을 통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함.

21-25절: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므로(21절)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초청을 받는다.

1. 가까이 다가가자(22). 구약의 제사장들은 물로 씻고 피를 뿌리는 것 같이 겉을 정결하게 하여 가까이 다가갔다(레16). 그러나 이제 우리는 순수한 마음과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요일1:5-2:2). 특히 요일1:8-9

2. 굳게 붙들자(23).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믿음의 고백을 버리면서 구약 체계로 돌아가려는 위험에 있었다. 그런데 바울은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라고 말한다. 되돌아가면 안 된다.

3. 서로를 돌아보라(24-25).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라(롬15:1-3). 히브리 성도들 가운데는 심지어 교회에 오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주일에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므로

26-31절: 대단히 엄중한 말씀이다. 그럼에도 구원 취소 교리가 결코 아니다.

26절의 우리는 누구인가? 칼빈주의자들: 확실히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아르미니안주의자들: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을 잃어버린 자들이다. 둘 다 No!

여기의 우리는 기록자인 바울을 포함한 히브리 성도들이다. 이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다. 10절 15절의 우리, 19-22절의 우리, 형제가 26절의 우리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23-25절도 다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권면이다.

히브리서 강해 제2과

히브리서 10장

히10:10, 16-18 단번 속죄

세월호 침몰로 인해 구원과 문제가 언론에 회자되고 있다.

성경 신자들에 대한 비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것은 죄 짓는 면허를 주는 것이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비난을 받을 일을 해 왔다(과거의 구원과 등). 여러 대형 교회의 비리, 5000억원 횡령, 간음, 표절 등 모두 잘못된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완전함이 요구된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성경의 구원: 영원한 구원, 단번에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구원받은 이후의 죄 문제(롬6:1-2):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요일1:9).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심각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질병, 사고, 사망 등, 고전5:5; 11:30; 9:27 등). 히브리서 6장과 10장은 이런 심판을 말한다. 보상의 손실 배도의 순서: (1) 말씀에서 떠남(히2:1-4), (2) 말씀을 의심함(히3:7-4:13), (3) 말씀에 둔해짐(히 5:11-6:20), (4) 말씀을 멸시함(히10:26-31).

26-27절: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아들인 뒤...무슨 지식인가? 어떤 이들은 이것이 구원에 관한 지식이라고 말한다. No! 무슨 지식인가? 히6부터 여기까지 바울은 누구에게 무엇을 말했는가? 신약의 대제사장, 신약 시대, 희생 예물 등이 구약의 것들보다 훨씬 좋고 위대하다. 이런 진리의 지식을 받고도 고의로 유대교 구약 체계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뜻이다.

26절의 '죄를 지으면'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는 하나의 특정한 죄가 아니라 히브리 성도들의 태도를 말한다.

28절: 구약의 사례, 이미 이집트를 떠나 구원받은 자들

이들에게는 몇 종류의 죄들이 있었다.

- a. 무지의 죄(레4:2, 13-15, 17, 20)
- b. 행하지 못한 죄(레5:1)
- c. 사체 등으로 더럽혀진 죄(레5:2), a, b, c의 죄는 용서가 되었다(레5:5-6).

그러나 살인(출21:14), 간음, 우상 숭배, 안식일,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혹하는 죄(신13:6-10) 등의 명백한 죄는 즉시 죽음으로 이어졌다.

두세 증인: 나봇의 예(왕상21), 이세벨의 계략,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였다. 도시 밖으로 끌고나
가 돌로 쳐서 죽임

29절: 말씀을 멸시하는 태도는 곧 그리스도를 발로 밟는 것과 같다.

그런데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무시하고(히9:16-20)

이것은 이미 구원받은 자가 그것을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다: 신성모독

분명히 구약 체계로 되돌아가면 안 됨을 성령님이 부드럽게 은혜로 가르쳐주었는데도 거부하면 하나님
의 심판이 임한다. 이 경우는 특히 히브리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이다.

이런 경우 27절과 29절의 심판과 형벌이 임한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징계가 임한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요일5:16).

30절: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심판하리라(신32:35-36). 내 백성은 '구원받은
자', 신명기의 문맥: 구원받은 자들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31절: 구원받은 자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히12:28-29).

이스라엘 백성의 고의적인 죄는 고전10:1-12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구원은 받았어도 징계를 받아 죽기까지 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사도는 히브리서 12장에서 징계에 대해 자세히 다룬다.

다윗은 간음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 이후에 평생토록 그 죄의 대가를 받았다(삼하12:7-15).

그 이유: 주의 명령들을 업신여겼다(삼하12:9). 주님을 업신여겼다(삼하12:10)

이것을 극복하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

확신을 가질 것을 촉구함(32-39)

32-34절: 과거에 히브리 성도들이 행한 일들을 회상해 보라.

32절: 구원받은 뒤에 너희 행적을 살펴보라.

33절: 비방과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과 사귀었다.

34절: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로하였다. 재산의 노략도 기쁘게 여겼다.

그 이유: 하늘에 소망이 있으므로

개역성경: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을 있는 줄 앎이라, '하늘에'를 삭제함

그런데 교회의 리더가 이것을 악용해서 돈을 긁어모으면 안 된다.

35절: 그러므로 그때의 그런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보상의 보응을 준다. 구원이 아니라 심판석에 서의 보상이다.

36절: 약속하시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보상이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히6:15).

보상을 얻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어려워도 참아야 한다. 고전3:12-15의 심판석, 보상

37절: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있다. 재림에 대한 초대 교회 성도들의 강한 확신(살전4장).

38절: 드디어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인 믿음으로 들어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함2:4; 롬1:17; 갈3:11).

로마서는 의인에 초점을 두면서 칭의를 강조한다.

히브리서는 이미 구원받은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것이 히11-13장의 핵심이다.

뒤로 물러가는 자: 구원받고도 말씀을 멸시하고 경고를 받지 않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누구인가? 26절의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다. 여기의 멸망 역시 구원 취소가 아니다. 죽는 징계를 받는 자들, 그러므로 여기의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를 지어야 할까? No! 롬6:1-2; 갈6:7

골3:23-25,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강해 제23과

히브리서 11장

10장 끝 부분에서 사도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였고(10:38-39) 이제 시련을 당하고 있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이야기한다. 타락하고 배도하는 것을 막으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10:38)의 의미

- A. 그리스도는 뛰어나신 분이시다(히1-6).
- B. 그리스도는 뛰어나신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신다(히7-10).
- C. 따라서 그분을 따르는 우리는 믿음이라는 뛰어난 원리에 따라 살아야 한다(히11-13).
- D. 롬1:16-17, 엡2:8-9

I. 믿음의 정의(히11:1-3): 믿음이란 무엇인가?

- A. 성경의 믿음은 환경과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두고 순종하는 것
- B.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환경과 결과에 상관없이 그대로 행해야 한다.
- C.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다.
- D.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드러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모든 믿음은 행위로 나타났다(빌2:12).
- E.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여기의 실체는 지지하는 것을 뜻한다. 집의 기초와 같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확신이 생긴다. 만질 수 있는 것이다.
- F.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하나님이 주시는 확증(고전2:9)
- G. 믿음은 증언하는 증인들을 만들어 낸다(11:2; 12:1). 좋은 평판(good report)을 얻는 이들을 생산해 낸다.
- H. 믿음은 다른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깨닫게 해 준다(3절). 특히 세상과 우주의 창조
 - 1. 세상들(동식물, 인간, 우주 등)이 말씀에 의해 창조됨(창1; 요1:1; 히1:2).
 - 2. 창세기 1장의 중요성, 무(無)에서 유(有)로의 창조, 구원의 기초(믿음의 기초)
- I. 믿음을 키우려면 믿음이 충만한 이들과 함께 걸어야 한다, 그들의 예가 4-40절까지 주어진다(good report 성적표).
 - 1.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 2. 각 사람의 내면에 사람마다 다양하게 변화가 생긴다.
 - 3. 하나님께 순종한다.
 - 4.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증언하신다.

II. 믿음의 증명(히11:4-40): 구약 시대 믿음의 증인들

- A. 아벨(4): 믿음과 예배, 창4:1-10, 의로운 사람, 첫째 대언자(눅11:50-51), 첫째 순교자
 - 1. 아담에게 보여 주신 피의 희생 예물 규례(히9:22)
 - 2. 아벨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인은 멸시하였다.
 - 4. 믿음의 행위, 부모의 훈계에 순종함
 - 3. 지금도 아벨은 말하고 있다.
- B. 에녹(5-6): 믿음과 교제(동행), 창5:21-24
 - 1.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 2.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함(출3:14), I AM THAT I AM.
 - 3.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롬2:7-8).
 - 4. 기도, 묵상, 예배, 훈련 등이 교제를 돕는다. 휴거의 모델(살전4:13-18)
 - 5.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다(고후4:17-18). 여기에 믿음을 두어야 한다(고후5:7).
 - 6.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행27:25).

- C. 노아(7): 믿음과 일, 창6-9, 120년 동안 말씀 선포하였으나 아무도 믿지 않음(창6:3).
1. 그의 믿음은 두려움을 가져왔고(잠1:7; 히12:28-29) 가족을 움직였고 배를 지었다.
 2.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롬1:16-17; 3:20-24; 벵후2:5)
 3.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믿음이 없는 세대(마24:36-42)
- D.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의 족장들(8-22): 믿음과 기다리는 것,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과 이스라엘 국가 건설 계획과 관련 있는 인물들
1. 아브라함을 부르심(75세)
 2.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함
 3. 25년 동안 기다림
 4. 이삭에게서 야곱, 그 뒤 요셉을 통해 12지파가 보존됨
 5. 그 뒤 모세가 이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옴(23-29)
 6.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특히 내게)
 7. 아브라함과 사라(8-19), 창15:6, 롬4:1-5
 - a. 8절: 갈대아 우르, 하란, 가나안, 갈 데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며 나갔다(창12:1)
 - (1) 75세(창12:4), (2) 행7:2-5 참조, (3) 우리 교회와 성경 사역

히브리서 강해 제24과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정의(히11:1), 아벨, 에녹, 노아

7. 아브라함과 사라(8-19), 믿음과 기다리는 것, 창15:6, 롬4:1-5
 - a. 8절: 갈대아 우르, 하란, 가나안, 갈 데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며 나갔다(창12:1)
(1) 75세(창12:4), (2) 행7:2-5 참조, (3) 우리 교회와 성경 사역
 - b. 9절: 이들은 낯선 나라에 머물듯이 장막(tent)에 거하였다(고후5:1).
 - c. 10절: '새 예루살렘'(계21:2),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히10:34; 12:22; 13:14)
 - d. 11-12절: 사라, 이미 죽은 자기 몸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롬4:18-22). 90세(창17:17), 하늘의 별처럼 많은 사람이 나옴(창15:5; 22:17, 육적 자손, 영적 자손). 사라는 심지어 아브라함을 주(主)라 부르며 자매들에게 본이 됨(벧전3:5-6).
 - e. 13절: 약속하신 것들을 당대에는 받지 못했지만(히11:39; 요8:56) 멀리서 보고 끌어안았고 나그네와 순례자라고 고백함(벧전1:17; 2:11).
 - f. 14-16절: 그들은 더 좋은 본향을 찾고 있다.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 g. 17-19절: 약속들을 받은 상태에서 자기의 독생자 이삭을 바침(창22:11-12), 부활의 모형으로 그를 받음(창22:5의 확신, 요8:56의 의미),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약 2:21-22, 26). 구원받으면 반드시 선한 행위가 나와야 한다(엡2:8-10).
8. 이삭(20): 야곱과 에서 축복(창27:26-40), 40절 에서의 운명
 - a. 창27에서 사실 이삭은 의심 속에서 야곱을 예서로 착각하고 축복함
 - b. 실제로는 창28:4의 축복이 이삭의 믿음의 행위
9. 야곱(21): 에브라임과 므낫세 축복(창48:1-20), 창48:16과 21이 실제로 믿음의 행위
10. 요셉(22): 이스라엘의 탈출, 뻘(창50:24-25), 맹세하게 함, 출13:19의 성취
- D. 모세(23-29): 믿음과 싸우는 것, 120년의 삶(40+40+40)
 1. 모세는 믿는 부모를 두었다(23절, 아므람과 요게벳). 이 부모의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었다(출 2:1-10). 우리도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죽어야 한다. 아이가 특이하다는 말은 모세에게 무슨 마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믿음의 행위이다.
 2. 거절할 줄 아는 믿음(24-25): a.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 거절
b. 죄의 쾌락들 거절: 세상의 성공, 명예, 위치, 업적 등, 이것은 이집트의 영광
 3. 믿음으로 인한 수치 수용(26): a. 궁전을 떠나 다시는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음.
b.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시 된 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치욕이라 함.
c. 믿음의 인물들은 다 이 수치를 당하였다.
 4. 믿음의 보상(26-29): 히브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보상이 있음을 일깨워 줌(6절도).
 - a. 모세는 도망한 이후로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믿음이 들어가면서 바뀌게 되었다(출3-4).
 - b.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견뎌냈다(롬1:20; 고후4:17-18).
 - c. 그 결과 그는 자신과 민족을 구출하였다(출11-13).
 - d. 유월절, 어린양, 피 뿌리는 것(히9:22).
 - e. 믿음은 환경과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두고 순종하는 것을 증명함
 - f. 다음에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나와야 하지만 이때는 불신의 기간이므로 안 나옴.

히브리서 강해 제25과

히브리서 11장

E. 여호수아와 라합(30-31): 믿음과 승리(수2-6)

1.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은 동일하다(수1:1-9).
 - a. 그는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먼저 요르단을 건넌으로써 믿음을 보임(수3)
 - b. 여호수아의 때에 심지어 해와 달이 멈추어 섰(수10:12-14). 아모리 족속의 5왕, 기브온
2. 라합: 창녀, 믿음을 통해 은혜로 살아남음, 고백(수2:8-14), 특히 11절
 - a. 이런 믿음은 선한 행위로 이어졌다(약2:20-26). 주홍색 실(수2:18)
 - b.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음으로써 메시아의 계보를 이음(마1:4-6; 룿4:18-22)).
 - c. 이방 여인이 누릴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세리와 창녀들의 믿음, 마21:31)
 - d.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 믿으면 된다.

F. 믿음의 영웅들(32-38): 믿음으로 인한 다양한 행위(실체와 증거)

1. 기드온(삿6:11-7:25): 미디안
2. 바락(삿4-5): 드보라와 함께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침
3. 입다(삿11:1-12:7): 길르앗의 서자, 암몬 족속, 입다의 딸은 인신 제물이 아니라 평생을 처녀로 살았다(삿11:34-40). 개역성경은 37, 38절을 '처녀 죽음'으로 오역함. 39절의 설명
4. 다윗, 사무엘, 대언자들: 이들이 한 일들((33-35)
 - a. 다니엘(단6)
 - b.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단3:23-28)
 - c. 믿음의 여인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왕상17:17-24), 엘리사와 수넬 여인(왕하4:18-37)
5. 35절 후반부터는 구출 받지 못한 이들의 믿음
 - a. 톱에 잘려 죽은 이: 아마도 이사야 대언자
 - b. 지난 2,000년 동안 신약시대 믿음의 선조들(37절의 예)
 - c. 이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아주 낮았다(38절). 그래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였다.
 - d. 바울의 예: 베스도는 그가 미쳤다고 했다(행26:24).
 - e. 세 소년의 고백(단3:16-18)
 - f. 구출과 죽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판단에 달렸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다.

G. 믿음의 영웅들의 최종 평가(39-40):

1. 좋은 평판(성적표)은 받았지만 당대에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였다(39). 여기의 약속하신 것은 11:13 참조, 물론 이들은 죽은 뒤 하나님의 영광과 행복에 참여하였다. 다만 이들은 예표 속에 살면서 실체를 보지는 못하였다. 어느 면에서 이 약속은 땅에서 이루어질 메시아 통치의 약속
2. 그 이유(40): 구약 성도들은 신약 성도들을 앞지르지 못한다. 메시아, 단번 속죄, 죄를 제거함, 대제사장, 죽음 이후의 장소, 부활 등의 계시에서, 계시의 진보

H. 이런 믿음은, 1.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생긴다(롬10:17).

2. 또한 교제와 기도에서 생긴다(히10:23-25).
3.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롬15:4).
4. 구원받은 자들의 패배들이 교훈을 준다(고전10:1-12).

I. 이들은 무엇을 믿었는가?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었는가? No!

1. 롬4:1-8
2.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혹은 하나님 그분)을 믿었다.
3. 우리도 믿음을 증대시켜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

히브리서 강해 제26과

히브리서 12장

11장에서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보여 준 뒤 사도는 히브리 성도들이 그들처럼 살 것을 촉구한다.

I.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을 격려한다(12:1).

II. 그리스도께서도 인내하셨다(12:2-4).

(1) 십자가를 참아내셨다. (2) 죄인들의 모욕을 참으셨다. (3)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셨다.

III. 그들의 시련이 그들의 유익이 될 것이다(12:5-13).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징계가 있다.

IV. 예서의 경우처럼 복을 놓치면 안 되며 끝까지 참아내야 한다(12:14-17).

V. 사도는 구약과 신약의 대조를 통해 더 큰 복을 받은 신약 성도(특히 히브리 성도들)들이 끝까지 인내해야 함을 보여 준다(12:18-29).

12장에서 바울은 두 가지 주제를 말한다. 달리기 게임(12장 전반부)과 시민권(후반부)

운동 게임 스타디움에는 시민권을 가진 선수만 들어감

I. 예수님의 예(1-4)

1절: 구름 때 같은 증인들을 보라.

1. ‘그러므로’의 의미: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으므로

2. 구름 때 같은 증인들, 11장의 예, 증인(witness)은 순교자(martyr)

a. 이들이 우리를 내려다본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고(스타디움에서처럼)

b.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심을 이들이 증언한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다(11:4-5, 39 참조).

c. 여기의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

3. 구약의 중요성,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롬15:4)

4. 너희 자신을 보라, 운동선수들은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연습할 때 극기 훈련을 한다(모래주머니).

a. 그러나 경기장에 가서는 다 벗어버리고 뛰다.

b. 주머니가 없는 운동복(반바지)

5. 무거운 것: 경기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 꼭 죄가 아닐 수도 있다(운동, 취미 등).

6. 너무 쉽게 우리를 얹어매는 죄: 불신, 진노 등(골3:5-9)

7. 인내로 달리기 경주를 하자. 100미터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a. 컨디션 조절(고전9:24-25), 절제

b. 법에 어긋나지 않게(딤후2:5)

c. 목표를 정하고(빌3:13-14; 골3:1-3)

d. 끝까지(딤후4:7), 죄수 머리에 우유를 놓고 달리기, 1킬로미터

2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님을 보라, 틴데일의 번역

창시자: 믿음의 길을 열고 맨 앞에서 본을 보이며 선두 주자로 뛰신 분

완성자: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완주하신 분

1. 그분을 바라볼 때(우리의 믿음, believe) 우리는 인성을 가지셨던 그분의 완전한 믿음(faith)을 본다. 10-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온전한 본

a. 롬1:17

b. 이 믿음은 우리가 믿는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이다: 창조부터 재림까지

2. 구약 시대의 늦 뱀(민21:4-9; 요3:14-16)

3. 예수님 역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셨다. 아버지께 기도하셨다.

4. 예수님은 구약시대 어떤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의 소유자, 완벽한 분

5. 십자가를 견디셨다: 굶주림과 목마름, 모욕, 고통(사53:3-5), 배신, 아버지의 거절, 사망, 그럼에도 죄들을 어깨에 지시고 죄가 되셔서 결국 끝을 내셨다(요17:4; 19:30).
 6. 어떻게 이기셨는가? 주님은 개인의 이득을 위해 자신의 신성을 사용하지 않았다.
 - a. 마귀의 시험(마4:1-4), 사람으로서 감당하셨다.
 - b. 믿음으로 감당하셨다: 시16:8-10의 부활(행02:24-33), 시110:1, 4의 승천(행2:34-36)
 - c. 그 결과 기쁨 쟁취(사53:11)
 7. 그리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시22, 사53, 빌2).
- 3절: 죄인들이 거역한 것(모순), contradiction, 죄인들이 모순을 일으킨 것
1. 창조물이 창조자를 죽임, 침 뱉고 모욕함
 2. 당장에 쳐부술 수도 있었으나 아버지께 맡기고 참으심(벧전2:23).
 3. 그런 모순을 이긴 이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4. 어려움을 당할 때 바로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그래야 낙심하지 않는다.
- 4절: 히브리 성도들은 지금 고통을 당하지만 아직 피를 흘리지는 않았다(4).
1.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처럼 미래를 보고 자아와 싸우며 끝까지 참아야 한다(보상의 문제).

히브리서 강해 제2과

히브리서 12장

고난 중에 있는 히브리 성도들, 구약 체계로 돌아가며 막 배교하려 하고 있다. 예수님과 대제사장들 비교, 구약과 신약 비교,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 예수님의 본
여기까지 이야기 한 뒤 사도는 이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강력한 경고를 줌
그리스도인도 징계를 받는다. 요즘 교회에서 듣기 어려운 생소한 메시지, 모든 자녀가 징계를 받는다(8).
그리스도의 심판석, 보상과 보상의 손실(고후5:9-11)

II. 징계: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5-13)

징계: 아이들 훈련 및 교육, 그리스 아이들은 어른이 될 때까지 체육관을 다님
힘들지만 성숙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11절).

고난당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의심할 때가 있다. 그럼에도 세 가지 이유로 징계가 주어진다.

A. 5-6절(성경 말씀)

1. 잠3:11-12, 히브리 성도들도 많이 읽어 알고 있었지만 잊고 있다(히5:11-12).
2. 이것은 격려하기 위한 권면의 말씀
3. 아들, 자식들, 아들들(총6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식들, 양자가 된 우리(롬8:14-18)
4. 징계는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 성도들에게도 질병, 사고, 손해 등이 생길 수 있다.
5. 균형 잡힌 아버지: 사랑하면서 또 채찍질한다(6).
6. 바울의 사례, 죄를 짓지 않아도 징계가 있을 수 있다(6의 의미), 믿음의 부족 때문이 아니다.
 - a. 겸손하도록(고후12:4-8)
 - b.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도록(고후1:1-4)
 - c. 하늘 보고 살도록(골3:1-3)
 - d. 하나님의 약속들을 잊지 말고 살도록(빌4:12-13)
7. 두 종류의 성도: 멸시하는 자(죽는다), 낙심하는 자(기쁨이 없다)

B. 7-10절(개인의 체험)

1. 징계가 없이 아이들을 키우면 문제아가 된다.
2.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 자식들만 징계한다(7).
3. 그러므로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다. 특히 심각한 죄, 불순종에도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8)
4. 징계의 목적: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하게 하는 것(9)
5. 징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9). 요일5:16(롬8:13), 고전10:1-12, 심지어 모세도, 딤후1:18-19
6. 영들의 아버지: 창조자
7. 육신의 아버지는 종종 이기적으로 징계한다(10). 하늘 아버지는 그런 적이 없다.

C. 11절(복된 결과)

1. 징계는 당장에는 아버지와 아들 모두에게 힘들다. 암, 사고, 손실 등을 기뻐할 사람이 없다.
나의 경우 교회 실패 등
2. 그러나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약3:17, 순수한 그리고 화평).
3. 징계는 열매를 맺는다. 징계의 수단
 - a. 가시(고후12:7): 겸손하게 한다.
 - b. 칼(요15:2): 가지치기
 - c. 하나님의 말씀(요15:3): 깨끗하게 한다.
 - d. 채찍(히12): 하늘 보고 소망 갖고 살라고

4. 그러므로 징계는 단련이다. 욥의 사례(욥23:10)

III. 영적 활력 회복(12-17)

A. 이제는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12-13).

1. 늘어진 손, 연약한 무릎

2. 곧은 행로 만들기: 장애물을 치워야 한다(12:1), 그래야 교회의 약한 성도들이 고침을 받는다.
아픔이 따라도 고쳐야 한다.

3. 화평과 거룩함 추구: 대단히 중요하다. 세상과 분리(고후6:14-18), 회개

히브리서 강해 제2권과

히브리서 12장

IV.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한다(12:1-2). 그리스도인의 목표(14)

A. 화평과 거룩함 추구(히7:1, 의의 왕, 화평의 왕의 모범)

1. 화평 추구(롬12:18; 14:19, 고전7:12-15)
2. 거룩함 추구, 세상과 분리(고후6:14-18), 회개
3. 그분을 보지 못한다. 실제로 모두가 그분을 볼 것이다(그리스도의 심판석, 흰 왕좌 심판석). 다만 화평과 거룩함이 없으면 화평 중에 그분을 보지 못할 것이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화평 중에 그분을 볼 수 있다(롬5:1; 3:21-24).

B. 그래서 부지런히 살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15).

1. 구원의 상실을 말하지 않는다. 이미 히브리 성도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2. 성화와 상속 유업의 은혜를 말한다.
3. 가나안에서의 실패처럼, 에서의 실패처럼

V. 이를 위해 세 방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A. 과거의 나쁜 예 즉 쓴 뿌리를 보라(15-17).

1. 쓴 뿌리(신29:18-19)
 - a. 괴롭게 만든다. 교회에도 교리가 다른 자들이 들어오면 교회를 괴롭게 한다(롬16:17-18)
 - b. 더럽게 만든다. 그 결과 더럽혀진다. 순수성을 잃게 된다. 16절의 음행하는 자
2. 에서의 예: 자기의 영적 권리를 휴지조각처럼 내버림(창25:29-34, 32-34). 야곱에게 준 복을 돌리려고 하였으나 하지 못함. 늦으면 눈물도 소용없다. 가짜 눈물: 야곱을 죽이려 함
3. 영적인 근면함 부족, 남을 귀찮게 만드는 것, 음행(13:4; 약4:4), 세상처럼 속되게 사는 것(롬 12:1-2)
4. 부지런히 살피야 한다(15). 에서는 영적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호탕하며 아버지를 사랑한 아들이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늘의 소망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5.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지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구원 받았어도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B. 하늘의 도시의 영광을 보라(18-24)

1. 시내 산과 율법 수여 그리고 시온 산과 교회의 복 비교(출19:10-25; 20:18-21; 신4:10-24)
2. 율법 수여 당시의 두려움과 공포(12:18-21 출19:16, 18, 21-22 등)
3.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 두렵게 행하심(출19:13; 20:18-21)
 - a. 구약 3,000명 사망(출32:28)
 - b. 신약 3,000면 구원(행2:41)
4. 이 두려운 광경과 시온 산의 비교: 안도가 된다(22-24). 22절은 '그러나'로 시작함.
5. 땅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 비교(갈4:21-31)
 - a. 하늘의 시온 산(시48:2; 50:2)은 손으로 만질 수 없다.
6. 하늘의 예루살렘의 거주자들
 - a. 무수한 천사들
 - b. 총회, 처음 난 자들의 교회, '처음 난 자'는 뛰어남을 말한다. 총회와 교회는 같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c. 심판자 하나님
 - d. 심판자 하나님에 의해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 몸을 입은 것으로 판단됨(계6:9-11 참조),

환난기 성도들 등

- e.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히7:22; 8:6; 9:16-18)
- f. 아벨의 피(공의를 부르짖음)보다 나는 것들을 말하는 뿌리는 피(은혜와 긍휼), 히9:18-23(특히 23절), 벧전1:18-19
- g. 피를 가지고 가셨다(히9:7, 12, 25, 13;11). 언제 요20:17
- h. 그 피는 영존하는 언약의 피이다(히13:20).
- i. 그 피는 뿌리는 피이다(사52:15; 히9:14; 10:22)

7.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라. 모세처럼(히11:27)

C. 움직이지 않는 왕국을 바라보라(25-29)

- 1. 모세의 말을 듣지 않던 자들이 심판을 받음(25), 히2:3과 비교
- 2.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분(마4:17 등)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이 있다.
- 3. 하늘을 흔들 때가 다가온다(학2:6, 21-22). 재림의 문맥이다(사24:19, 22; 겔38:19-22).
- 4. 흔들리는 것들은 제거된다(27). 지금 있는 땅과 하늘(계6:14; 21:1)
- 5.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왕국만 남는다(28). 하나님의 왕국(요), 하늘의 왕국(천년왕국)
 - a.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 긍휼, 사랑, 우리의 구원, 천국 집, 새 하늘과 새 땅
 - b. 흔들리는 것: 자기 신뢰, 사람의 왕국과 권세, 재물, 교육, 철학, 종교, 우주 정복 계획, 지금 있는 땅과 하늘의 모든 것
- 6. 그러려면 은혜를 소유해야 한다.
 - a. 여기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성화의 은혜, 보상의 은혜이다.
- 7. 그리고 공경하는 마음과 두려움으로 그분이 받으실 수 있도록 섬겨야 한다(시89:7).
- 8. 하나님은 거룩한 분으로 소멸시키는 불이시다(신4:24; 출24:17, 레10의 나답과 아비후).

히브리서 강해 제2권과

히브리서 13장

사도는 1-12장에서 구약과 신약 비교한 뒤 히브리 성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 준다.

믿음의 영웅들(11장), 심지어 하나님의 징계까지 언급하며 격려(12장), 소멸시키는 불(12:29)

마지막 13장에서 사도는 그들이 성도로서 믿음의 삶의 증거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총 13장 중에서 12장을 할애하여 교리를 다루었다. 그런데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할 말이 아직도 너무 많다. 13장 한 장에서 그는 성도를 대접하는 것, 결혼, 교회 지도자 대우,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는 것, 디모데 석방 등을 다루며 마무리 한다.

I. 형제의 사랑(1-3)

A. 히브리 성도들은 여기저기서 왕따를 당함(자기 동포들에게 또 로마제국에서).

1. 집을 잃고 떠도는 형제들이 많았으므로 이들을 친절하게 대접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2. 또한 여행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많았다(요삼5-8).
3. 많은 경우 교회는 집에서 모였으므로 방문자는 그 집에 머물러야 했다.
4. 그래서 목사의 자격 중 하나는 대접을 잘하는 것이었다(딤후3:2; 딤후1:8).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로(롬12:13).
5. 우리 교회 자매님들에게 감사함: 음식 대접이 풍성하다(주일 오후, 저녁).
6. 이번의 시애틀 방문, 꽃과 과일들을 모텔로 보내줌. 식당에서 교제, 따뜻한 형제의 사랑이다.

B.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할 수 있다.

1. 창18의 아브라함, 세 명의 남자, 한 분은 주님, 사라에게 아들 출생 예고, 소돔 멸망
2.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은 후일에 천국에 가서 실상을 알게 될 것임
3. 성경의 천사는 다 남자이다(계21:17)

C. 다른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1. 그 당시 성도들이 체포되어 투옥되는 일은 빈번하였다.
2. 바울 역시 옥에 갇혔다.
3. 우리의 교제: 영적 문제/ 육적 문제를 나눈다. 삶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4. 교회에 오면서 모든 것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사람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사람이다.

II. 결혼의 신성함(4)

A. 결혼의 신성함을 유지해야 한다.

1. 음행하지 말라는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 성도들 중에도 음행자가 있다.

1. 부부 간에만 성생활이 유지되어야 한다(잠5:18-23).
2. 동성애 등 사악한 것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성도들이 본을 보여야 한다. 시애틀

B. 음행의 대가는 심각하다.

1. 다른 죄는 몸 밖에 짓지만 음행은 몸 안에 짓는 죄이다(고전6:12-20)
2. 심지어 성도라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3. 다윗의 예: 용서는 받았지만 그 이후의 그의 삶은 간음 죄로 인한 불행의 연속이었다. 암논과 다말의 예

III. 탐욕의 문제와 해결책(5-6)

A. 살면서 가장 큰 문제는 돈 문제이다(돈이 원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물질관이 확실해야 한다.

1. 성경의 정의: 탐욕은 우상숭배이다(골3:5). 필요 이상으로 원하면서 하나님 위에 돈을 두는 것
2. 실제로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된다. 삶이 풍성해지면 하나님을 버리게

- 된다. 인간의 본성이다. 오히려 북한/중국의 성도들의 영이 우리보다 더 깨끗하고 충만할 수 있다.
3. 우리나라의 지난 반세기를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태를 보면 답이 나온다(삿2:6-10).
 4. 백만장자는 자기의 재산에 만족할까? 그런 사람은 없다.
 5. 필요 이상으로 돈을 사랑하고 또 돈이 넘치면 패기망신한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다(딤후1:8-10). 하나님께서 돈을 주셔야지 내 힘으로 돈을 찾으려 다니면 인생을 망친다.
 6. 누가복음의 부자의 예(눅12:15)

B. 탐욕의 해결책

1.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다(신31:7-8; 수1:5, 9).
2. 6절은 시118:6을 인용한 것이다. 메시아 시편,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였다(시118:8-9, 22-23, 26). 설명

IV. 영적 지도자들과의 관계(7-8, 17, 24)

A. 평등과 동등의 문제

1.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지만 지역 교회에서 모두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지는 않는다.
2.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질서 있게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남편과 아내, 세상의 권력자들과 백성, 모든 조직에는 직무상 상하가 있다.
3. 교회는 유기체이기도 하면서 조직체이다. 교회도 질서가 없으면 무법천지가 된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다(고전14:33).
4. 그래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7, 17, 24에 걸쳐 3번이나 나온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들이 그들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자들이 있다.
5. 바울은 가는 곳마다 지도자들을 세웠다(행14:23; 행20:28; 딤후1:5; 빌1:1).

B. 성도들의 책무

1. 그들을 기억해야 한다(7).
 - a. 우리는 결코 사람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
 - b. 특히 못된 목사들이 많아서 목사 혐오증에 걸린 성도들이 많다.
 - c.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지도자들을 존경해야 한다(살전5:12-13). 성도들이 안 하면 누가 하겠는가?
 - d. 이 지도자들이 말씀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 뒤에 말씀으로 성장시킨다.
 - e. 이런 사역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디오, 인터넷, 책).
2. 그들에게 순종해야 한다(17).
 - a. 참으로 따르기 어려운 말이다.
 - b. 목사의 의무를 보여 준다: 자기가 회계 보고할 자인 것 같이 해야 한다(고후11:28-29).
 - c. 성도는 목사가 근심하지 않게 기도해야 한다. 목사의 근심은 모두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
3. 그들에게 문안해야 한다(24).
 - a. 목사와 그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 b. 나를 떠받쳐주는 것은 나를 인정하고 도와주며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다.
 - c. 멀리 간다고 할 때 그 눈빛과 말을 보면 부족한 목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
 - d. 이것이 목사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다.
 - e. 목사에 대한 험담은 쓴 뿌리가 되어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딤후5:17-19).
 - f. 목사를 사랑하면 다가와서 묻고 오해를 풀어야 한다.
 - g. 빌4:10-13, 14

히브리서 강해 제3과

히브리서 13장

지난 주: 형제 사랑, 결혼, 물질관, 교회 지도자들과의 관계 설명

V. 몇 가지 문제(9)

A.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엡4:11-14), 미숙한 자들의 특징(딤후3:7)

1.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요일4:1-3), 부활(딤후2:18)
2. 성경 보존, 행위 구원(구원의 보장 멸시), 환난 통과

B. 앞뒤 문맥상 음식 문제로 보인다: 특히 히브리 사람들의 까다로운 음식 규정, 양심이 약한 자와 강한 자(로마서 14장, 고린도전서 8장), 딤후(4:3-5)

VI. 영적 예배(9-19)

구약 성도: 성전, 제단, 희생물, 땅의 예루살렘 등이 모두 하늘의 것들 즉 실체들의 예표이다

신약 성도: 이것들에 상응하는 실체가 있다.

A. 제단(10)

1. 이것은 물리적인 제단이 아니다. 히브리서의 포인트를 이해해야 한다.
2. 구약에서는 제단을 통해 피의 희생이 드러지고 속죄의 복이 임하였다.
 - a. 놋 제단: 피의 희생물(출27)
 - b. 금 제단: 향(출30), 기도의 예표(시141:2)
3. 신약시대에도 영적인 의미에서 이런 제단이 있다. 속죄와 기도 응답의 복이 임하는 통로
 - a.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다(13:15). 혹은 십자가다.
 - b. 실제 제단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예수님이 단번 속죄로 끝을 내셨다.

B. 그리스도의 치욕 짊어지기(9-14): 구약과 완전히 결별해야 한다.

1. 속죄일(레16:27, 7월 10일)

- a. 속죄일의 죄 헌물 수소와 염소의 피를 궁핍의 자리에 뿌려 지성소에서 속죄를 이루고 진영 밖으로 그 짐승들의 몸을 가져다가 완전히 불태움(가죽, 고기, 똥).
- b. 원래 보통 날의 죄 헌물과 음식 헌물의 일부는 제사장 소유(레6:25-26, 민18:9-10 등), 그러나 속죄일의 죄 헌물은 No
- c. 그러므로 여전히 구약의 제사장 체계 속에 거하려는 자는 완전한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에게서 취할 것이 하나도 없다. 중요함.

2.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수치를 당하고 죽으심(12; 요19:17-18).

3.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진영 밖에서(즉 구약의 종교의 틀 밖에서) 그분의 수치를 짊어져야 한다.

4.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핍박은 받지 않는 것

5. 바울의 포인트: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반드시 그분과 함께 수치와 모욕을 짊어져야 한다(딤후 3:12).

6. 우리는 어떤가?

C. 두 가지 영적 희생물(15-16)

1. 영적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한다. 비물질적인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2. 물질적인 것도 영적인 희생물이다(빌4:10-20). 18절
3. 하나님의 영에 의해 영적인 목적으로 쓰인다는 의미(롬12:1-3)
4. 하나님께 대한 찬양, 우리 입술의 열매
5. 선을 행하고 나누는 것(13:2, 3), 나누는 것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D. 기도: 가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기도를 요청함, 그들에게 빨리 돌아가고자 함

1. 정직(행6:3)
2. 선한 양심(딤후1:18-20)

VII. 바울의 기도(20-21)

- A. 양들의 목자: 참 목자 유일한 목자, 목사는 땅에 있는 잠정적인 목자
- B. 영존하는 피: 사람의 피가 아니다(마26:27-28; 행20:28), 셋째 하늘에 있다(12:24)
- C. 예수님의 부활: 부활의 첫 열매(수확, 이삭줍기)
- D. 평강의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근본 이유, 평안, 화평(롬5:1)
- E.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다. 죄 없음이 아니다. 원래 뜻 '금이 간 뼈를 맞추는 것'(12:12-13)
 1. 말씀(딤후3:16-17), 기도(살전3:10), 지도자(엡4:11-12), 다른 성도(갈6:1), 고난(벧전 5:10), 징계(12장)
- F.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이루게 하신다(빌2:13).
- G. 영광이 그분께만 있기를 원한다.
- H. 아멘.

VIII. 마감

- A. 권면의 말: 바울의 사랑(잠27:6, 17)
- B. 히브리 성도들과 디모데의 관계(23), 잘 모름. 디모데는 그 당시 널리 알려진 복음 사역자, 그의 석방을 알리는 것은 모두에게 중요하였다.
- C. 문안(24), 이탈리아 출신의 사람들: 기록자가 이탈리아에 있거나 거기서 온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음, 추신을 보면 전자로 보임
- D. 은혜에 말김(행13:43; 14:26; 15:40)

히브리서 총결론

1. 구약은 예표이다. 신약이 실체이다.
2. 예수님은 천사들, 모세, 대제사장, 짐승 희생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다. 비교 불가
3. 히13: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곧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출3의 "I AM THAT I AM"(출3:14-15), 불변하는 분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계1:8)
 롬8:1-2
 히6:1